

조코위 대통령 당선인 집권 2기

인도네시아 비전, 5대 목표·4대 사명·16개 정책

조코위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7월 14일(일) 보고르군 센郇컨벤션센터에서 ‘비전 인도네시아’라는 주제의 대선총선 당선자 대회에서 5대 목표 4대 비전 16개 정책 청사진을 발표했다.

2019 대선 총선 당선자 대회에는 내각장관, 지지 정당원, 자원봉사자와 함께 부통령 당선자인 마루프 아민 부통령 당선자와 영부인 Iriana Joko Widodo 여사, 마루프아민 부통령 당선자의 부인 Wury Estu Handayani 여사도 참석했다.

이날 2019 대선 총선 당선자 대회에 앞서 전날 조코위 대통령과 빤라보워 수비안또 총재는 남부 자카르타 MRT의 르박불루스 역에서 대선 발표 이후 처음으로 만나 화해했다. 이 자리에서 빤라보워 수비안또 총재는 조코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공식 석상에서 발표해, 조코위 대통령 집권 2기 초반부터 야권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민족단결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날 조코위 대통령 당선인의 비전 인도네시아 발표에서 유일한 국가의 이념으로 빤짜실라를 다시 선언했다. 유일한 국가의 이념으로 빤짜실라 선언은 통일 인도네시아를 이루고,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들의 이데올로기인 이슬람국가 킬라파를 차단하고자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조코위 대통령 당선인은 '비전 인도네시아'에서 제2기 집권 5대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 전국 인프라 건설을 계속한다.

둘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개발한다.
셋째, 국민들이 일자리를 위해

넷째, 국군들이 민사디를 위해
많은 투자를 유치한다.
넷째, 투자자들이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행정과 관련 법률

을 간소화한다.
다섯째, 국가 예산에 맞게 목표
를 정하고 국가 예산 사용을 확
보장 한다.

실히 한다.
마루프아민 부대통령 당선자도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이 인도네
시아 건설을 즐길 수 있어야 한
다”고 전하면서 “우리가 단결하

여 국가를 건설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서 조코위 대통령

은 연설의 대부분을 유일한 국가
이념인 빤짜실라를 거부하며 방해
하는 단체에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며 어떠한 관용도 없다”고
경고하면서 안다운 진지함은 그

경고하면서,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야당을 지지를 할 수 있지만, 원한을 갖거나 모욕을 하지 말라”고 KOMPAS 신문이 7월 15일 보도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제2기 집권에 따른 4대 사명을 천명했다.

첫째, 인도네시아 국민 생활수준을 향상한다. 둘째, 공평하고 균등한 국가를 건설한다. 셋째, 인도네시아 문화를 성장시킨다.

A wide-angle photograph of a massive political rally. The stage is set with a large red carpet, a podium with a red and white emblem, and a speaker. A massive crowd of people in white shirts fills the foreground and middle ground. In the background, a massive wall of Indonesian flags is displayed, stretching across the stage. A large screen on the left side of the stage shows a close-up of a speaker. The stage is brightly lit with spotlights and surrounded by a red and white striped backdrop.

<지난 7월 14일(일) 보고르군 센돌컨벤션센터에서 조코위 대통령 당선인은 '비전 인도네시아'라는 주제의 대선총선 당선자 대회에서 5대 목표 4대 사명 16개 정책 청사진을 발표하고 있다.>

<p>넷째, 국가는 청렴해야 하며, 효 과적이고 신뢰하도록 관리한다.</p> <p>4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조 코위 대통령 당선인은 16가지 정 책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p>	<p>1. 임신부와 아이, 학생들이 건 강을 관리한다.</p> <p>2. 출산 산모와 아기 사망률 줄 이고 어린이 성장 발달을 위 해 지원한다.</p> <p>3. 교육 수준을 향상한다.</p> <p>4. 교육과 직업 훈련을 발전시 킨다.</p> <p>5. 인재양성기관을 설립한다.</p> <p>6. 재외 동포 인재를 지원한다.</p>	<p>7.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특별 경제구역과 관광지, 농수산 업을 연계한다.</p> <p>8. 국가 예산은 국민번영을 위 해 사용한다.</p> <p>9. 뺨짜실라를 유일한 국가이념 으로 삼는다.</p> <p>10. 다양한 종교, 문화, 종족을 포옹한다.</p> <p>11.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p> <p>12.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 규를 간소화한다.</p> <p>13. 공무원을 개혁한다.</p> <p>14. 정부조직을 개혁한다.</p> <p>15. 문제가 있는 정부 기관을 정리한다.</p> <p>16. 공무원 사고방식을 개혁한 다.</p>	<p>Wakil Ketua Tim Kampanye Nasional (TKN) Arsul Sani 담당자는 “연설은 30분 제한된 시간에 모든 문제를 다룰 수는 없다. 연설은 공동체에 관심있는 것을 선택한다”고 말하면서 “대 통령은 인프라 개발과 인적 자 원 개발 문제가 가장 큰 변화라 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가 법률 및 인권 문제를 무시한 것은 아 니다. 공정한 법 집행과 인권 상 황을 해결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고 말했다.</p>
	<p>1. 임신부와 아이, 학생들이 건 강을 관리한다.</p> <p>2. 출산 산모와 아기 사망률 줄 이고 어린이 성장 발달을 위 해 지원한다.</p> <p>3. 교육 수준을 향상한다.</p> <p>4. 교육과 직업 훈련을 발전시 킨다.</p> <p>5. 인재양성기관을 설립한다.</p> <p>6. 재외 동포 인재를 지원한다.</p>	<p>7.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특별 경제구역과 관광지, 농수산 업을 연계한다.</p> <p>8. 국가 예산은 국민번영을 위 해 사용한다.</p> <p>9. 뺨짜실라를 유일한 국가이념 으로 삼는다.</p> <p>10. 다양한 종교, 문화, 종족을 포옹한다.</p> <p>11.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p> <p>12.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 규를 간소화한다.</p> <p>13. 공무원을 개혁한다.</p> <p>14. 정부조직을 개혁한다.</p> <p>15. 문제가 있는 정부 기관을 정리한다.</p> <p>16. 공무원 사고방식을 개혁한 다.</p>	<p>Wakil Ketua Tim Kampanye Nasional (TKN) Arsul Sani 담당자는 “연설은 30분 제한된 시간에 모든 문제를 다룰 수는 없다. 연설은 공동체에 관심있는 것을 선택한다”고 말하면서 “대 통령은 인프라 개발과 인적 자 원 개발 문제가 가장 큰 변화라 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가 법률 및 인권 문제를 무시한 것은 아 니다. 공정한 법 집행과 인권 상 황을 해결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고 말했다.</p>

• 캐리어나 A2



인도네시아 비전, 조코위 당선인 연설(전문직역)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할 것이며, 비효율적이면 스스로 옷을 벗을 것"

Visi Indonesia,
Kata Per Kata
Pidato Jokowi

2019-2024년 대통령으로 선출 된 조코위도도 (Joko Widodo, 이하 Jokowi)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7월 14일 밤, 서부 자와주 보고르에 있는 Sentul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비전 인도네시아"라는 주제로 연설했다. 이에 한인포스트는 집권 2기를 맞는 조코위 대통령 당선인의 연설 전문을 직역하여 게재한다. <편집부>

5 TAHAPAN 목표

- Bismillahirrahmanirrahim
(자비로운 신에 이름으로- 무슬림 인사)
- Assalamuallaikum wrwb(무슬림 인사)
- Salam sejahtera bagi kita semua (기독교 인사)
- Om swastiastu(힌두교 인사)
- Namo buddhaya(불교 인사)
- Salam kebajikan (좋은 일 합시다-인니어 인사)

제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인도네시아 신사 숙녀 여러분,
우리는 매우 역동적인 지구 환경에서 현재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매우 역동적으로!

1. 첫째, 우리는 인프라 개발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할 것입니다!

Yang pertama, pembangunan infrastruktur akan terus kita lanjutkan!

우리는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더 빨리 유료 도로와 철도, 항구, 공항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를 만들어 국민 생산 영역과 연결할 것입니다.

우리는 소상공인 산업 지역과 연결합니다. 우리는 특별 경제 구역과 연결합니다. 우리는 관광 지역과 연결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

우리는 여러 인프라를 농경지와 농어촌에 연결하는 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목표에 연결합시다! 목표에 연결하겠습니다!

2. 둘째, 우리는 인적 자원을 개발할 것입니다.

Yang kedua, kita akan menggeser, yaitu kepada pembangunan sumber daya manusia.

우리는 인재 개발에 우선 순위를 둘 것입니다. 인력 개발은 앞으로 인도네시아의 핵심입니다. 인력 개발의 출발점은 임산부 건강, 유아 건강, 어린이 건강, 취학 연령 아동의 건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래의 우수한 인도네시아 국민을 양육하는 황금기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로 가능한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해야 합니다. 근로자 고용 기회를 확대하려면 가장 폭넓은 투자를 받아야 합니다. 투자 유치에 아무 알레르기가 없습니다. 투자 유치로 일자리를 많이 열릴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듬어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뒤죽박죽 늑장 처

니다. 산모와 유아 사망률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큰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직업 훈련의 중요성, 직업 학교의 중요성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 인재 육성 관리 기관을 설립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주의 인재에 대한 교육 지원 및 자기 계발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것입니다.

3. 셋째, 가능한 많은 투자를 유도해야 합니다.

Yang ketiga, kita harus mengundang investasi yang seluas-luasnya.

재능이 뛰어난 디아스포라 재외국민을 인도네시아 발전의 가속화에 크게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수한 재외동포 인재 관리를 하는 특별 기관을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훌륭한 인력을 관리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로 가능한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해야 합니다. 근로자 고용 기회를 확대하려면 가장 폭넓은 투자를 받아야 합니다. 투자 유치에 아무 알레르기가 없습니다. 투자 유치로 일자리를 많이 열릴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듬어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뒤죽박죽 늑장 처

리하는 라이선스 인허가, 특히 라이선스 인허가 뒷돈은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는 조심해야 합니다. 앞으로 내가 직접 확인하고 통제하고 점검하고 징계할 겁니다!

더 이상 투자 장벽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여는 열쇠입니다.

4. 넷째, 관료주의를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Yang keempat, yang keempat, sangat-sangat penting bagi kita untuk mereformasi birokrasi kita.

정부기관을 더 간단하고, 민첩하게 만드는 구조 개혁! 공무원의 관료주의적 사고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다듬을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조심하세요!

인허가 발급 속도, 서비스 속도가 관료적인 개혁의 열쇠이기 때문에 유의하십시오.

나는 내 자신을 먼저 스스로 점검할 것입니다! 나 먼저 조절할 것입니다!

내가 비효율적이거나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것을 잘라 버릴 것이고 스스로 옷을 벗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 기관이 있다면 해당 부처 장관은 유용하지만, 문제가 된 기관이 있다면 나는 반드시 해체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사 숙녀 여러분,

더 이상 생각만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고지식한 패턴을 원하지 않습니다. 안일한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단조로운 일은 없습니다. 평범한 땅에는 더 이상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는 이것입니다!

5. 다섯째, 우리는 국가예산 사용 목표에 초점을 맞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Yang kelima, kita harus menjamin penggunaan APBN yang fokus dan tepat sasaran.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변해야 합니다!

Harus berubah! Kita harus berubah! Sekali lagi, kita harus berubah!

우리는 직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시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응력 있는 인도네시아, 생산적인 인도네시아, 혁신적인 인도네시아, 경쟁력 있는 인도네시아로 계속 발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국가예산 사용 목표에 초점을 맞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예산(APBN)에서 나오는 모든 돈은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에게 지역사회 복지증진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사 숙녀 여러분,

조코위 대통령 당선인 연설
(7월 14일 센트럴 컨벤션 센터)인도네시아의 비전
VISI INDONESIA문제해결에 대한 사고방식 변화
혁신, 모범, 방법, 새로운 가치직업 프로그램
5가지 우선 목표

인프라

- 생활지역과 연결성
- 소상공업
- 특별경제구역
- 관광지
- 농지
- 농장
- 양어장

인력자원

- 프로그램의 초점 :
-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학생 건강 보증
- 직업 교육 개발
- 인재관리기관 설립

투자

- 취업확대를 위한 투자
- 신속한 투자 허가 관리
- 투자위한 관료 제도 개혁

공무원 개혁

- 모든 일을 신속하고 간단히 처리
- 사고방식 전환으로 상황 대처능력 강화
- 공무원 개혁 과정에 대한 감독 평가

국가예산 사용

- 국민들이 국가예산 혜택 국가예산 사용은 투명하게
- 경제를 위하여
- 사회를 위하여
- 번영을 위하여

주요 전제 조건
민족단결과 강력한 통일국가

빤짜실라 국가이념
인도네시아 국민
다양한 종교, 문화, 종족, 관습을 존중
국가이념인 빤짜실라로
민족 통일성 유지

120주년 맞은 계명대, 버까시 봉사활동에 구슬땀



봉사단, 학교 시설개선과 지역주민 자립교육에 미성 기계 전달

대구계명대학교(단장 김용일)와 계명문화대학교(단장 박상화) 봉사단은 인도네시아 자바팔레스호텔과 공동으로 지난 7월 4일부터 13일까지 찌카랑 지역 Serta Jaya 1 초등학교와 Serta Jaya 5 초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1월 봉사 활동에 이어서 계명대 교수, 임직원 및 학생 44명이 중심으로 자바팔레스호텔 임직원이 합류했다.

Serta Jaya 1 초등학교에서는 교실 내외벽 도색공사, 교실 외벽 벽화 작업, 책걸상 보수 공사, 천정 보수 공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자립을 위해 폐선디자인과로 구성된 봉사단은 재봉기술을 전수하고 미성 기계 11대를 기증해 자립 발판을 만들도록 해 주었다.

계명문화대 교수 임직원과 학생 31명은 Serta Jaya 5 초등학교 교정 작업에 땀을 흘렸다. 봉사단은 교실 내외 벽 도색공사와 벽화 작업, 책걸상 보수, 천정 보수, 화단 재 정비로 교내 환경을 말끔히 정리해 주었다.

계명대 봉사단 관계자는 “계명대와 계명문화대 교수 임직원과 학생 그리고 현지에서 자바팔레스호텔 임직원이 함께한 이번 봉사활동은, 열악한 환경의

활동에 나섰다.

지난 2019년 5월 창립 120주년을 맞은 계명대는 매년 하계 방학과 동계방학을 통해 국외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은 (사)계명1% 사랑나누기에서 한화 1억 2,660만 원과 미화 36,000달러, (사)계명문화 1퍼센트사랑의손길에서 한화 1000만 원, (사)동산의료선교복지회에서 한화 2000만 원과 의류 3,100만 원 상당을 후원 받아 진행된다.

<동포사회부>



새로운... 맛이 보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싶습니다



토박

BEJ
Bank Woori

무궁화



* 새로운 메뉴 *

- 콩나물삼겹살
- 녹차고등어김치조림

Jl. Woltermonginsidi No.30 Jakarta Selatan

예약전화

Tel : 725-1135, 7278-0055, 7280-0753

Fax: 720-3642 HP.0858-1412-5338

8월에 한국-인도네시아 운수권 항공회담

운수권 합의 위한 항공회담 8월 13~14일 서울서 열려

한국-인도네시아 간 운수권 증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오는 8월 13~14일 서울서 항공회담을 열고, 양국간 운항 횟수 및 노선을 정하는 ‘운수권 합의’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인천~자카르타 노선의 운항 횟수 증대, 부산(김해)~자카르타 직항편 신규 개설 등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파악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운수권은 총 45회로, 이 중 33회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은 3회, 인도네시아는 9회의 운수권이 남아 있다.

기존 정규편 운항 외에 항공 운수권 회담에서 자카르타 주 7회(매일 운항), 발리 주 3회 운항 등이 추가되면 양국에서 약 20회 정도의 운수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항공회담에서 운수권 증대가 결정되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하늘길은 지난 2012년 6월 이후 7년 만에 넓어지게 된다. 2012년 당시 항공회담에서 양국은 각각 1개 국적사(대한항공·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만 취항할 수 있었던 것을 복수 항공사의 취항이 가능하도록 합의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자카르타 노선에 신규 취항했다. 주당 19회였던 운항 횟수도 32회로 늘었다.

특히 운수권 증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곳은 저비용항공사(LCC)들이다. 에어부산을 비롯한 LCC들은 이전에는 인도네시아로 뛰어들어 맹렬한 비행기가 없었으나, 최근 항속 거리가 늘어난 신형 항공기를 잇달아 도입하면서 중장거리 노선 경쟁에도 뛰어들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부산시도 부산~자카르타 직항 마련을 위해 국토부에 인도



네시아 및 브루나이와의 항공회담 개최를 건의하는 등 부산~자카르타 직항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또한 기존 운수권 미사용분의 항방에 대한 관심도 높다. 가루

다인도네시아항공 측은 미사용 분 9회의 운수권 선점을 위해 부산~자카르타, 부산~발리의 취항을 추진하고 있다.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외에도 인니 최대 LCC 라이온에어 또한 전세기 형태로 한국 취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인구 수가 4위인 데다 아시아권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나라 중 하나”라며 “특히 섬나라이기 때문에 항공 수요가 높다. 한국에서도 특히 저비용항공사들이 인도네시아 노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박재아 인도네시아 관광청 한국 지사장은 “인도네시아에서 6시간 미만으로 달을 수 있는 지역 중 상품성이 높은 지역으로 마나도(술라웨시), 소룡(라자 암

PT. FREIGHT CARGO LOGISTICS



해상운송

- Neutral Consolidator
- Transport Containerized Cargo & Heavy Project Cargo
- Custom broker

항공운송

- Worldwide Transportation Service
- Project Cargo & Special Cargo (Exhibition, Dangerous Cargo)
- Air/ Sea & Sea/Air Service

내륙운송

- Containerized & Heavy Project Cargo Transportation

창고보관 업무

- Wide Warehouse Network

통관 업무

- Customs Clearance Service
- Processing of Fress Duty List

컨설팅

- Logistics Consulting Service



PT FREIGHT CARGO LOGISTICS

Gedung Perkantoran Pulomas Satu, GD.3 LT.3 R.10

JL. Jend. A. Yani No.2, Jakarta Timur

TEL. 021-475 4547, EMAIL: import@fcl.co.id / export@fcl.co.id

조코위 대통령, 빠라보워 총재와 MRT 회동

빠라보워 총재 출구전략과 조코위 화합정치에 불가피한 회동



조코위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결과 불복선언으로 법정싸움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빠라보워 수비안토 총재와 대선이후 처음으로 만나 화해했다. 조코위 대통령 당선인과 그린드라당 빠라보워 수비안토 총재는 7월 13일 MRT Lebak Bulus 지하역에서 만나 기자회견과 지하철 탑승 그리고 점심을 함께 먹으며 화해했다. 지난 5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PU는 조코위 후보가 55.5%대 44.5%로 당선했다고 발표했지만, 빠라보워 후보측은 불복 선언 시위로 9명이 숨지고 900여명이 부상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대선 이후 출구전략이 필요한 빠라보워 총재와 국민화합으로 집권2기를 시작하는 조코위 대통령 당선자의 정치적 포옹으로 보인다고 언론은 평가했다.

주간 단신

■ 술라웨시 자와 연쇄 강진발생

발리 누사두아에서 83km 남서쪽으로 떨어진 지점으로 진원의 깊이는 91.6km로 6.0 강진이 발생해 발리 주민들이 놀라 대피했다. 북밀루쿠 해상에 일주일 간격으로 7.2 강진이 발생했다. 7월 14일 오후 16시10분 북밀루쿠 할마해라해상(Labuha, Pulau Bacan, Maluku Utara)에 7.2강진 발생했지만 쓰나미조기 경보는 없었다.

이날 강진은 지난 7일 7.1강진 이후 7일만에 다시 발생한 것으로 지난 7월7일 22시 8분에도 술라웨시섬 북동쪽 말루쿠 해상에서 규모 7.1 강진이 발생해 쓰나미 조기경보를 발령했다가 2시간 만에 해제했다.

■ 콘테이너 선박, 운전미숙으로 크레인과 충돌

7월14일 스마랑 딴중마스 항구에서 콘테이너 선박이 접안중 운전미숙으로 크레인과 충돌해 크레인이 인근 크레인 3대와 대기 중인 콘테이너를 덮치는 사고 발생했다.

■ 롬복 공항서 헬기추락으로 외

국인 3명부상

교통부 (Kementerian Perhubungan -Kemenhub)는 인도네시아동부시간 7월 14일(일) 14시3분에 Bandara Internasional Lombok Praya 공항에 착륙하려던 헬기가 추락했다고 발표했다. 헬기추락사고로 외국인 3명이 부상해 현지병원에 입원했으며, 부상자는 Luka Marie (독일Jerman), Nicholas Alexander (영국Inggris) serta Donoso Lillo (칠레Chile)이다.

한편, 지난 6월 28일에는 파푸아 산악지대에서 12명이 탑승한 인도네시아군 헬리콥터가 실종됐지만 현재까지 찾지 못한 상태다.

■ 북부 수마트라 이틀동안 우박소동

지난 7월 7일과 10일 북부 수마트라주 5개마을과 아체지역에 때 아닌 우박이 30분동안 쏟아져 주민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엄지 손가락만한 크기의 우박이 마을에 쏟아져 눈처럼 쏟았고 이후에는 폭우가 내렸다.

■ 중국 전기차 공장 인니아전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미

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 불확실성을 피해 인도네시아로 생산공장의 이전을 검토 중이다.

리드wan 차말루딘 해양조정부 차관은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인 BYD와 JAC이 미국 시장에 수출하기 위한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한다”며 “전기차 제조업체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고 BYD는 이미 현지기업 파트너를 물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차말루딘 차관은 “정부는 서부 자와를 투자처로 제안했지만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배터리 공장과 인접한 지역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를 선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차량 소유주 변경 세금(BBNKB) 12.5% 올려

인도네시아자동차공업협회 GAIKINDO에 따르면 “자카르타 주 정부가 연내 시행하려는 차량 소유주 변경세금(BBNKB) 인상이 차량 판매를 줄일 것”이라고 지난 7월1일 밝혔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차량 소유주 변경세금을 10%에서 12.5% 올리겠다고 주의회에 상정했다.

2050년 전세계 도시 3/4 기후 완전히 달라질 것

2050년이 되면 전세계 520개 주요 도시의 4분의 3은 완전히 달라진 기후를 맞이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11일(현지시간)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스위스 크라우더 연구소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각국의 노력으로 안정화되고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1.4도 가량 오르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토대로 분석을 했음에도 이 같은 ‘놀라운 기후 변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샌프란시스코는

2050년엔 지금의 포르투갈 리스본과 비슷한 기후가 될 것이고 뉴욕시는 지금보다 4도 가량 올라 베이비나비치처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북부 지역 도시들의 2050년 기후는 현재 지구상에서 1000km 남쪽에 있는 도시와 같아진다는 것이다. 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싱가포르 등 20%의 도시는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뭄과 열대우림 사

경고했다. 열대 지방은 비교적 기후 변화가 적지만 그럼에도 점점 더 우기와 건기가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역시 2050년 여름은 지금보다 3.5도 높아지고 겨울은 4.7도 더 낮아져 폭염과 혹한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총재는 “지금 기후변화에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50년 뒤엔 구워져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YSM & PARTNERS 법률사무소

기업법무, 투자 & 비즈니스컨설팅, M&A, 송무, 개인법무. 부동산, 자원개발, 지식재산권, 파산관재.

Corporate, Investment & Business Consulting, M&A, Litigation, Arbitration, Private, Property, Natural Resources, IPR, Curator

yisngmin@gmail.com, yisngmin@centrin.net.id

Tel. (62-21)525-5959, 527-2422, Fax. (62-21)527-2423

MP. (62)816-1911245

Korea Center Building Suite 202,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No. 58, Jakarta Selatan

대표변호사 이승민, YI SENG MIN, SH, MH

무료 법률상담, Free Legal Consulting

• 주일 :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자카르타한인연합교회] Jl. Wijaya I No.41,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Tel. (021)720-5979. MP. 0816-1911-245

• 화요일 : 오후 2시 ~ 4시 [Jakarta 무역관] Wisma GKBI Suite 2102, Jalan Jenderal Sudirman No. 28 Jakarta Pusat, Tel. (021) 574-1522

신농씨 한방병원 건강칼럼

열대기후 속 온열병과 냉방병 예방관리법

본격적인 건기로 접어들면서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2,3개월 동안은 건기 중에서도 비가 거의 오지 않은 매우 가물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다보니 무더위에 더위를 먹고 기력이 떨어지거나, 체력 보충이 필요하거나, 혹은 일사병·열사병 또는 냉방병에 걸렸다면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무더위에 땀을 지나치게 많이 흘린다면 아이의 열을 식혀주는 보약을 찾는 부모도 종종 찾아옵니다.

본래 한국에서도 여름철에는 세심한 체력관리가 필요합니다.

한의학의 고전인 동의보감에서도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건강관리가 여려모로 쉽지 않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낮 시간이 길어 활동량은 늘어나는데, 땀을 많이 흘리고, 열대야에 생활이 불규칙해지기 쉬워 피로감이 배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인도네시아는 계속 무덥기 때문에 그 만큼 건강유지에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체력이 소진됩니다.

열대기후의 열기는 땀구멍을 여닫는 ‘위기’(衛氣)를 소모시켜 땀 배출량이 늘어나게 합니다.

적당한 땀 배출은 체온조절에 도움이 되지만, 지나칠 경우 체내 진액을 손실시켜 수분·전해질 부족으로 이어져 주의해야 합니다.

더위를 먹었다면 머리가 아프고, 입맛이 떨어지며, 몸에 열이 나고 갈증이 심해지고, 경



우에 따라 땀이 비 오듯 흐르기도 합니다.

움직일 기운조차 없다면 이 미기가 크게 상한 것으로, 이럴 때는 인삼, 오미자, 맥문동을 각20g씩 물 2리터에 넣고 약한 불로 달여 물 대신 수시로 마시면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야외활동으로 더위를 먹었다기보다, 지나친 냉방과 찬 음료를 많이 마셔 ‘냉방병에 시달린다며’ 병원 문을 두드리는 환자를 더 많이 접하게 됩니다.

실제로 더운 날씨에 과하게 차운수 바람을 맞으면 오히려 땀이 증발하지 못해 몸이 무거워지거나, 두통이나 콧물, 재채기 같은 감기증상과 함께, 뼈마디가 쑤시고 가슴이 답답한 몸살, 복통·구토·설사가 나기도 합니다.

냉방병은 흔히 현대에 들어 새로 생겨난 질병으로 여겨지나, 동의보감에도 ‘중서’(中暑)라는 여름병에 대한 내용 중에 냉방병과 유사한 개념이 언급됩니다.

중서의 한 종류인 ‘음서’(陰暑)에 대해 ‘서늘한 정자나 차가운 물 속에 오래 있는 등 과도한 피서로 생긴다’고 설명돼

있는데, 이처럼 동의보감에도 현대의 냉방병에 해당하는 원인 및 증상에 대해 상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냉방병을 예방하려면 실내온도 차이를 5~6도가 넘지 않게 유지하는 게 우선입니다.

또 속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섭취하고 단백질·비타민이 풍부한 보양식품을 먹는 게 좋습니다.

닭고기는 성질이 따뜻하고 무독해 심한 갈증이나 설사 등을 개선하고, 내장의 정수를 보충해주고 양기를 북돋아주면서 소장을 따뜻하게 합니다.

삼계탕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한약재는 인삼과 황기인데, 인삼은 땀을 많이 흘려 기운이 처질 때 기운을 나게 하고 황기는 땀 분비를 조절합니다.

또 너무 찬 음료를 달고 살기보다, 찬물로 입을 헹궈내는 정도로 음용하는 게 좋고, 샤워도 차가운 물보다 따뜻한 물이 오히려 더위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해가 진 이후 하루 20~30분씩 가볍게 산책하거나, 실내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더 위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구분	일사병	열사병
심부 체온	≤ 40°C	> 40°C
정신 상태	- 정상 - 30분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는 어지러움증과 약간의 정신 혼란. 즉시 회복되는 실신	- 비정상 - 혼란, 발작, 의식소실, 경련, 어눌함
호흡계	정상 또는 빠른 호흡	정신 혼란과 동반된 느린 호흡 또는 빠른 호흡
순환계	- 정상 혈압과 빠른 맥박 - 약간 또는 중간 정도의 탈수	- 저혈압과 빠른 맥박 - 중간 또는 심한 탈수
피부	땀으로 축축함	건조 또는 땀으로 축축함
그 외	구역감 및 구토, 두통, 피로, 위약	구토와 설사, 황문근 융해증, 급성 신부전, 심인성 쇼크, 간기능 부전

신농씨한방병원

“교민분들의 편의를 위해 일요일 오후진료를 실시합니다.”

새로운 장소(간다리아 부근)로 이전했습니다.

* 진료과목

금만성통증(요통, 경통, 두통, 무릎통증)

각종 내과질환(소화기, 호흡기 전문)

심장병, 중풍, 클리닉

소아성장, 수험생 클리닉

부인과 클리닉(생기증, 출산, 생리불순, 불임)

면역강화 프로그램(잦은감기, 설사, 만성피로)



평일 - 9:30 ~ 6:00 (목요일은 12:00까지)

토요일 - 9:30 ~ 3:00

일요일 - 오후 1:00 ~ 5:00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원장 최정(한의사 면허번호 12721)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의학 석사

대한 한의학회 방제학회 회원

대한 한의학회 면역학회 회원

<p

내년 최저임금 5.5% 인상한 베트남... 현지진출기업 인건비 부담은

2017년부터 한자릿수 인상률...현지기업 "사회보험 등 실제 인건비 부담은 더 커"

베트남이 내년 최저임금을 5.5%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한 가운데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는 인건비 부담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KOTRA 베트남 호치민무역관에 따르면 지난 11일 베트남 임금위원회는 2020년 최저임금을 평균 5.5%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6월 14일에 정부, 사용자, 노동자로 구성된 3자 논의에서 노동자측인 베트남 노동총연맹(VGCL)은 8.18% 인상안을, 사용자측인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는 2%대 인상을 제시했다.

이후 추가 논의에서 양측은 각각 6.7%, 4% 인상이라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베트남 임금위원회는 최종적으로 2020년 5.5% 임금 인상을 결정했다.

◆ 6.7% vs 4% 인상안 제시...5.5%로 결정

이번 임금 인상 결정으로 베트남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지역별로 최소 15만 동(7635원)에서 최고 24만 동(1만 2216원)까지 상승한다.

지역별로는 호치민시, 하노이와 같은 대도시가 포함돼 있는 1지역이 월급여기준으로 442만 동(22만5000원), 2지역 392만 동(20만원), 3지역 343만 동(17만5000원), 4지역 307만 동(15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참고로 베트남은 63개시·성을 1~4 지역으로 분류한 지역별 최저임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임금인상안에 대해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조안머우집(Doan Mau Diep) 차관은 "현



<베트남 근로자들. 사진=VNA/연합뉴스>

제 최저임금이 대다수 노동자들이 키고 있으며, 이번 임금 인상 결정으로 그들의 삶이 좀 더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동자 측인 베트남 노동총연맹 노동관계국 레딘꽝(Le Dinh Quang) 부국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주들의 부담을 높이기도 하지만 노동자들로 하여금 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장려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최종 합의안이 6%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5.5%는 대부분이 동의할 수 있는 중간지대(middle ground)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사용자 측인 베트남 상공회의소 황광봉(Hoang Quang Phong) 부회장은 "이번 협상 결과는 재계에 반갑지 않지만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기꺼이 공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 최근 한자릿수 인상률...사용자 "실제 부담은 더 커"

최근 베트남 최저임금 인상률

은 하락 추세로 2017년부터 한자릿수 인상률을 기록 중이다. 이번 5.5%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은 베트남 정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인 4%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다. 물가상승률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평가이지만 실제로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고용주들은 많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최근 인건비가 크게 상승했고 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최저 임금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각종 사회보험비용 등을 합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KOTRA 호치민무역관은 "최근 베트남 노동법 개정안 쟁점 중 하나인 추가근무시간 증가가 올해 10월 국회 심사를 통과한다면 노동자들의 초과근무 수당이 더 들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사용자들은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지만 생산성은 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다"고 전했다.

[오피니언뉴스=오성철 기자]



<베트남 최저임금인상을 추이(단위=%). 자료=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 시행

지난 2019. 1. 15.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2019. 7. 16.에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개정내용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들의 건강보험 가입 방식이 임의가입제도에서 당연가입제도로 변경된 것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3항). 외국인·재외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이 필요할 때만 가입신청을 하여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후 고액의 진료료를 받고 출국하는 등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적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변경되었다.

이 개정법이 시행되는 2019. 7. 16.부터는, 재외국민(한국 국적을 가졌지만 해외에서 주로 체류하는 사람)들이나 아래 표에 기재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제1항)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된다. 이전까지는 한국에서 6개월(2018. 12. 18. 이전에는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본인이 선택하여 가입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었다.

만약 한국에 입국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중간에 외국에 잠시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는 어떻게 될까? 중간에 외

국으로 출국했던 기간을 합산한 것이 30일이 넘으면, 한국에서의 6개월 체류로 보지 않게 되어 건강보험 당연가입에 제외된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4조 제6항).

다만 유학생의 경우, 즉 대학교나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6개월 체류와 관계없이 입국한 날짜에 바로 건강보험에 가입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3항 제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제1항 제4호). 별표 2 제4호 다목 참조)에 가까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건강보험에 당연가입시키는

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4조 제3항, 제1항 제1호 나목).

이와 관련하여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학생들은 현재 일반적으로 대학교를 통해 민간보험사에서 월 1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월 6만원(유학생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50% 경감된다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별표 2 제4호 다목 참조)에 가까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건강보험에 당연가입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입국일에 바로 당연가입되는 부분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대학교 외국인유학생 담당자의 청원이 올라왔었고,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 이 동의한 사실이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며칠 전인 2019. 6. 2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예고(입법예고)를 하였다. 그 내용은 유학생에 해당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들은 2021. 2. 28.까지 일단 건강보험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유학생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당연가입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한국에서의 6개월 체류와 관계없이, 그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받은 날 또는 국내 입국한 날로부터 바로 건강보험에 당연가입되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제1항 제1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1항 제1호 나목).

베트남 땅값·인건비 상승... 글로벌 의류업체 '울상'

갈수록 높아지는 임금 부담인데
하이테크 기업들 이전으로 비용부담 상승



신발을 생산하는 Pou Chen 대변인은 "베트남의 토지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인하 신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우리는 베트남에서 계속 발전 할 수 있는 더 많은 개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18년 한해 동안 Pou Chen은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신발 3억2600만 켤레 중 46%를 생산했다. 그러나 2019년 1~3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생산량은 43% 수준으로 하락했다. 반

대로 인도네시아의 생산량은 작년 동기대비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에서 41%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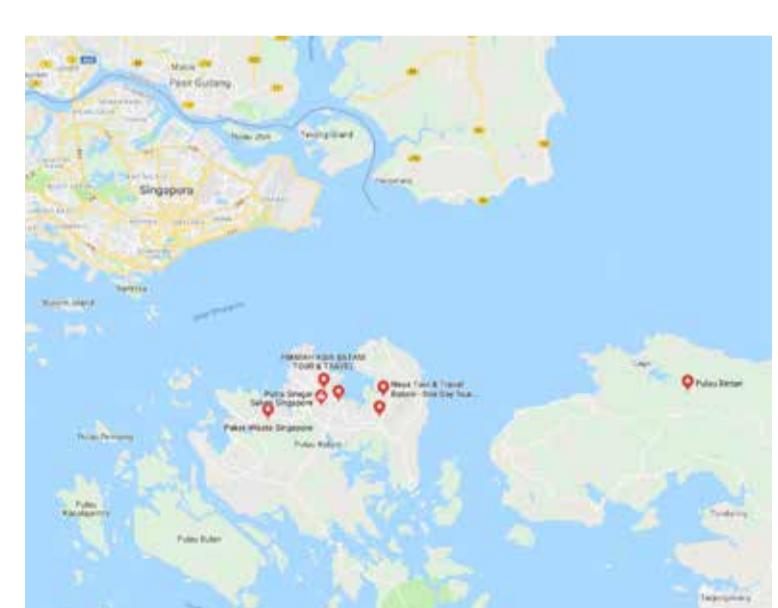
Pou Chen 대변인은 "그렇다고 베트남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야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는 비현실적이다. 하지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은 베트남보다 임금이 낮다. 이미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 기업들의 경우 베트남을 떠나 기반시설을 라오스나 미얀마로 옮기고 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인근국가로 생산라인을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

싱가포르-빈탄-바탐 7Km 교량 건설

최장 해상 교량...물류비용 절감·관광산업 확대



인도네시아가 싱가포르 인접 빈탄섬과 바탐섬을 연결하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긴 7km 다리를 건설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부터 4조 루피아를 투입해 3~4년에 걸쳐 빈탄섬과 바탐섬 사이에 다리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광고 및 구독 문의

HanInPost

한인포스트

PT.Hannahpress Indonesia
Tel: 021-4586-9199, 4586-9057
Fax: 021-4586-9198, HP.0812-1004-999
e-Mail: haninpost@gmail.com
www.haninpost.com

한국고깔협회-한국천연염색박물관 한인니문화연구원과 업무협약

인도네시아 한국 전통 고깔문화 효과적 전파 기대돼

‘한국전통고깔문화협회(회장 허복구(Heo, Buk Gu), 이하 한국고깔협회)’에서는 6월13일 한국천연염색박물관에서 ‘한인니문화연구원(원장 사공경)’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한인니문화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맺은 한국전통고깔문화협회(Korean Traditional Flower Hat Cultural Association)는 농악대의 고깔 등 한국 전통 문화의 보존, 해외 보급 및 전통 문화를 모티브로 하는 문화상품, 패션 상품을 연구하는 단체로 그동안 미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 한국 전통 고깔쓰기 체험을 진행해 왔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한·인니문화연구원’은 한국 전통문화를 인도네시아문화와 커다란 보합과 동시에 인도네시아 전통과 문화를 연구하고 한국(한국인)에 알리며 양국 문화 교류에 앞장서왔다.

따라서 한국전통고깔문화협회와 ‘한·인니문화연구원’ 업무협약은 한국전통고깔문화를 인도네시아에 효과적으로 알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고깔협회제공)



한인니문화연구원, 한국천연염색박물관과 MOA

한인니문화연구원(원장 사공경)은 지난 6월 13일 한국천연염색박물관(관장 김왕식)과 MOA를 체결하였다. 천연염색박물관은 2006년 9월에 개관한 한국 유일의 공립1종 천연염색전문박물관이다. 재단법인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천연염색 작품

의 전시 및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18년 8월 17일 한인니문화연구원은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사장 강인규)과 업무협약(MOU)을 자카르타 한인니문화연구원에서 맺은 바 있다. 이번 천연염색박물관과의 MOA는 천연염색재단과 맺은 업무체결의 한걸음 더 나아간 합의각서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협력과 정보 교환 외에 인도네시아에서 바티 염색의 연수 및 천연염색 작품 전시 등 천연염색 활동에 대한 두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포함됐다. 협약에 앞서 사공경 원장은 2019년 천연염색을 활용한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교육 훈련생 (전라남도민)에게 바티 강의를 하였다.

(한인니문화연구원제공)



GLOBAL LOGISTICS PROVIDER

We provide the optimum solution and customized service with smart logistics system.



KGL
Global Logistics Provider
PT. KGL Indonesia

The Prime Office Suite TWR LT7 Suite 7A
Jl. Yos Sudarso Kav. 30, Sunter
Jakarta utara, Indonesia 14350
Tel. +62-21-2265-4188
Email : korean@kglijkt.com
<http://www.kglnetwork.com>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세종학당재단 직영 인도네시아 거점 세종학당(KSIC)은 지난 7월6일(토)에 상반기 한국어 과정을 마무리 하는 수료식 행사를 가졌다. 지난 2월 16일(토)에 시작한 이번 학기에는 정규 강좌인 세종한국어 수업 외에도 수강생들의 요청으로 세종한국어 회화, 비즈니스 등 수업이 개설되어 450여명이 32개 반에서 강의를 수강했으며, 이번 수료식에는 약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상반기 수료식은 소품 주제로 한 학기 동안 동고동락한 같은 반 학생들이 버스에 나눠 타고 행사장으로 이동했다. 인솔자들은 수강생들에게 김밥과 음료수를 나눠 주면서 소풍 분위기를 한껏 더했다. 수강생들은 K-POP 노래자랑과 게임을 즐기며 학기를 마무리하는 날에도 행사장으로 가는 길에 함께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롯데시네마 파트마와티점에서 개최된 이번 수료식에는 KSIC 학당장, 교원, 운영요원 및 수강생 모두 한 자리에 모여, 한 학기간의 재미있고 즐거웠던 순간들이 담긴 기념영상을 감상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며, 그 동안 열성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시느라 애쓰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반 대표들이 수료증과 성적표를 받았으며, 이어 우수학습자에 대한 시상의 시간을 가졌다.

17주간 징계 없이 100% 출석한 성실상, 반 대표로 애쓴 모범상, 반 최고득점자인 훈민상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다. 수상자들 호명할 때마다 모두 함께 큰 환호성과 박수로 뜨겁게 축하했다. 또한 한 학기 동안 학당에서 봉사해준 3명의 학생 인턴들과 결혼 이민비자 수강생들에 대한 증명서 전달도 있었다.

뒤이어 수강생들은 인도네시아 미개봉자인 영화 ‘말모이’를 관람했다.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우리말이 금지된 시대에 한글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말모이’를 함께 감상하며 수강생들은 함께 울고 웃었다. 수강생들은 영화가 끝나고 “일제 강점기 당시 한국 사람들이 겪은 슬픔에 마음이

아팠다”며 숙연한 모습을 보였고, “영화를 통해 한글, 한국어가 힘들게 지켜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한국어를 소중히 여기며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는 수강생들이기에 영화 ‘말모이’의 내용에 더욱 크게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영화 관람을 마치고도 한참이나 수강생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한 학기 동안 같은 반 이었던 수강생들과 사진을 찍으며 헤어지는 아쉬움을 달랬다. 다음 학기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수료식 행사를 마무리 했다. KSIC 하반기 학사일정은 8월 18일(일)에 시작한다. 더욱 발전한 모습으로 하반기 수료식에 만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거점 세종학당 관계자들은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WE ARE INVITING

KMK 그룹

한국인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 공고

KMK 그룹은 나이키, 컨버스, 오프 화이트, 헌터 제조업체입니다

★CONVERSE Off-White™

- 모집 부문 -
개발, 생산

- 지원자격 -
영어 또는 인니어 가능자 / 능통자 우대
장기 근무 가능한자
졸업 예정자 및 기졸업자
군필 및 면제자

- 근무조건 -
인턴 3개월 후 정직원

- 제출 서류 -
이력서 / 자기소개서
서류 검토 후 개별 면접 통보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접수 방법 : recruit.kmkgs@gmail.com

접수 기간 : 7월 31일까지

Join us!
www.kmkgs.co.id

장박사의 청소년 진로진학칼럼 (21)

2020 대입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경향 분석



장창곡
교육학 박사, JKJS 진로교사,
커리어넷 진로상담위원,
대교협 대입정보포털 자료
개발팀 재외국민전형 담당
한인포스트 교육칼럼리스트

2020학년도 대입전형이 지난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대입전형의 첫 시작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원서접수부터다. 올해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7월 원서접수가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7월 10일에 마감한 상황이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7월 원서접수와 9월 원서접수로 구분하며, 대학은 이 기간 중 3일 이상을 원서접수하면 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적고, 지원자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상황이기에 원서접수 후 지원경향을 분석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하지만, 올해 수험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를 위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서울 상위권 대학들의 원서접수 마감 현황을 중심으로 2020학년도 대입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지원경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1. 2020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경향

올해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서울 주요대학의 지원자수가 많았고, 3년 중·고 해외이수자의 경우에는 경쟁률도 전년도에 비해 높았다. 또한, 서울 근교에 있는 비인기 대학교나 지방 대학교의 경우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경쟁률은 낮았다.

흔히 말하는 'IN서울'의 경향은 재외국민 특별전형도 예외는 아니었다. 오히려 더욱 높다고 말할 수도 있다. 즉, 전년도 3년 중·고 해외이수자를 선발하는 전체 대학교의 선발인원은 약 4,000명이었고, 수험생들의 지원 횟수는 약 12,000회였다. 수시모집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대체로 모든 횟수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며, 한국의 일반학생들은 6회 중 4.8회 정도를 지원한다.

따라서, 12,000회를 4.8회로 나누면 지원자수는 약 2,500명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매년 4,000명을 선발하는데 지원자는 2,500여명 정도인 것이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 12개 주요대학에 올해 지원횟수 5,525회는 전년도 12,000회의 약 46%에 해당한다. 이렇듯 많은 학생들이 서울 주요대학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초·중·고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12년)도 동국대 등 몇 개의 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지원자수가 늘었고, 특히나 건국대가 전년도 59명에서 185명이 더 늘어 전년도에 4배에 달하는 244명이 지원했으나, 동국대의 경우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대폭 지원자수가 감소했다. 또한, 숙명여대, 이화여대 등 여대도 전년도보다 소폭 지원자수가 감소했다.

2. 12개 주요 대학의 전년도 및 올해 지원 현황
3. 중·고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3년) 지원경향 분석

구분	2019학년도 대입			2020학년도 대입				
	3년		12년	3년		12년		
	모집	지원자	경쟁률	모집	지원자	경쟁률		
건국대	60	590	9.8	59	60	538	9.0	244
경희대	95	554	5.8	325	95	622	6.5	348
고려대	75	437	5.8	695	75	485	6.5	741
동국대	47	303	6.4	110	54	470	8.7	23
서강대	31	404	13.0	359	31	410	13.2	317
성균관대	67	577	8.6	744	67	665	9.9	829
숙명여대	43	258	6.0	24	43	243	5.7	9
연세대	68	401	5.9	691	68	480	7.1	781
이화여대	60	307	5.1	173	60	233	3.9	155
중앙대	88	728	8.3	517	88	707	8.0	498
한국외대	33	198	6.0	196	33	231	7.0	198
한양대	56	497	8.9	634	56	441	7.9	714
합계	723	5,254		4,527	730	5,525		4,857

5. 재외국민 특별전형 9월 원서접수 대학교 명단

앞서 설명했듯이 재외국민 특별전형 수시모집은 7월 원서접수와 9월 원서접수로 구분한다. 9월 접수는 9. 6.(금) ~ 9. 10.(화)에 진행되며, 대학들은 이 기간 중 3일 이상을 원서접수하게 된다. 9월 접수에 해당하는 대학 명단을 참고하기 바란다.

6. 재외국민 특별전형 9월 원서접수 대학교 명단

앞서 설명했듯이 재외국민 특별전형 수시모집은 7월 원서접수와 9월 원서접수로 구분한다. 9월 접수는 9. 6.(금) ~ 9. 10.(화)에 진행되며, 대학들은 이 기간 중 3일 이상을 원서접수하게 된다. 9월 접수에 해당하는 대학 명단을 참고하기 바란다.

7. 홍승수의 인도네시아 IT 칼럼(11)

2019년 10가지 IT 키워드(1)



글. 홍승수/
PT. KOREA TELECOM INDONESIA
대표이사
한인포스트 IT 칼럼리스트
sshong.kti@gmail.com

- 1. 4차산업혁명
- 2. 4차산업혁명의 주요기술
- 3. 스마트 팩토리
- 4. 스마트 팩토리 구축전략 (Fintech) 동향
- 5. 봉제 의류 제조업의 스마트 팩토리
- 6. 신발 제조업의 스마트팩토리
- 7. 인도네시아 정보통신 기술 동향
- 8. 인도네시아 펀테크 (Fintech) 동향
- 9. 디지털 노마드 (Digital Nomad)
- 10. 디지털 미니멀리즘

최근 기술의 발전은 해가 갈수록 급속도로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많은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에서 뒤쳐질 수 있다. 최근 IT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경제적, 사회적 및 정치적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있다 이번 연재에서는 2019년에 유행하는 IT용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10개의 용어를 선정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Immersive Experience (몰입형 체험)

최근 들어 가상현실 게임 또는 증강현실 기술이라는 용어는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다. 몇년 전 포켓몬 증강현실 게임이 유행하고 또한 가상현실 게임방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상현실에 대한 경험을 이미 해보았다.

이러한 가상현실(VR - Virtual Reality), 증강현실(AR - Augmented Reality), 복합현실(MR - Multi Reality) 기술들은 이미 우리들 생활에 적용되어지고 있다. 이 몰입형 체험기술은 게임분야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에도 적용되는 기술로 예를 들면 행동학습 로봇, 스마트 안경 등 산업현장에서 작업자에게 직접 정보를 전달하거나, 작업자의 행동을 학습하여 로봇이 대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2.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술은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IT용어라고 볼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경험학습을 통하여 스스로 결정을 하거나 스스로의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의 자발적인 지능행동을 의미한다.

최근 단순 수학적 알고리즘이 적용된 인공지능 기술이 아닌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적인 분석, 논리적 분석, 확률적 분석을 통하여 좀더 정확하고 정교한 분석 능력을 갖추게 되어 기업에서 미래 사업에 대한 분석이나 특정 기술의 오류 검증 등에 사용되어 진다.

또한, 인공지는 기술은 과거의 단순 기계학습이 아닌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기술을 활용하여 구조화 되지 않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심층학습을 하도록 도와준다. 이렇듯 인공지능 기술은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주제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최근 의료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사람의 심장과 신경을 연구하는데 적극 활용되어지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교통분야에서도 적극 활용되어 진다.

VOLVO는 앞으로 자동차라는 공간은 인간에게 먹고, 자고, 일하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Alexa, Cortana, Siri와 같은 인공지능기기들은 음성인식을 통하여 쇼핑을 하거나, 가전제품들을 동작시키거나,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는 등 이미 우리 생활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다.

3. 3D Alteration (3D 인쇄 기술)

수년전 3D프린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에 놀랐지만 단순히 시험용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어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수년 사



이에 다양한 재료들이 개발되어 지면서 3D 인쇄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다.

이미 많은 치과들이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모조 치아를 제작함으로서 치기공사의 직업이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 또한 건축분야에서도 활용되어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3층짜리 건물을 짓기도 한다. 이제 3D 인쇄 기술은 플라스틱 제품, 주택, 신발, 액세서리, 인체 조직 등과 같은 다양한 것들을 인쇄할 수 있다.

4. 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의심할 여지없이 Internet of Things (IoT)는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IT용어 중 하나이다. 이 기술은 점점 더 실체화되고 있으며 이미 많은 분야에 적용되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가전제품 매장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 TV가 아니면 구형 TV는 더 이상 찾기 어렵다. 스마트 TV는 IoT기술이 적용된 가장 흔한 가전제품이며 이제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의 일반 가전 제품에도 각종 센서 및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원격에서 제어하거나 좀더 향상된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

또한 다양한 웨어러블 장비, 차량에 부착된 IoT 장비 등이 서로 연동되어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며 인간의 삶에 편리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거래 장부를 검사하고 잘못 적히거나 누락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있는 정상적인 장부를 복제해 오류가 있는 부분을 대체하게 된다. 이 때 정상적인 장부의 기준은 전체 사용자 중 절반 이상이 인정하는 장부이다. 따라서 해킹은 사실상 불가능한 기술이다.

이러한 강력한 기술 기반에 도 불구하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시장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4~5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지금도 블록체인 기술에는 표준이나 명확한 가이드가 없다. 암호화폐만 보더라도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에버코인 등 거래가 가능한 화폐들이 무수히 많다.

이들은 다 제각각의 형식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에서 강력한 누군가가 흡수 또는 통일하여 글로벌 표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도 가정일 뿐 암호화폐의 미래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현재는 거래의 행위와 시장 확산을 위해 '금융업'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래 블록체인의 모습은 매우 다양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판매, 유통, 계약, 공유 등 개인 거래를 위한 중개 기술로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될 것이라는 얘기이다. 금융을 넘어 개인간 거래를 기반으로 공동경제가 블록체인 기술로 더욱 발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숨결을 느끼다」... JIKS Korean Day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백우정)에서는 지난 7월 12일에 한인동포, 인니현지인 등 300여명을 초대하여 한국의 전통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Korean Day 행사를 체험, 공연, 전시 3개의 마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체험마당에서는 한국의 사계절을 체험할 수 있는 화전만들기, 얼음접, 원두막 비빔밥 만들기, 먹기 등 23가지의 활동이 100여명의 학부모 도우미와 직스12학년들의 자발적 도움으로 재미있고 알차게 운영되었다. 또한, 한국 전통 문화 체험 코너에서는 직스 12학년들이 하루 종일 한복을 입고 전통훈례를 시연하

였고, 가마타기 코너에서는 가마를 직접 타고 옛 양반의 기운을 느끼기도 했다. 특히 전통음식 코너는 50여가지나 되는 전통 음식과 김치, 과자를 직접 먹어볼 수 있어서 가장 인기가 많아 시식을 위해 찾은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체험 중간에 이뤄진 공연에서 김종민 주인도네시아 총영사, 배도운 이사장, 박재한 한인회장이 축사로 코리안데이의 고마움을 전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모든 관객들은 직스 학생들이 직접 연주하는 아름바의 가락에 맞춰 홀로아리랑을 함께 부르며 우리 한복을 입고 전통훈례를 시연하

학년 학생들의 양증맞은 공연과 난타, 태권도, 우리춤, 상모판굿, 태권도 공연이 이어져 아낌없는 박수를 받았다.

전시 마당에는 한국의 전통 박물관을 통째로 기증한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강희중 회장의 예술품이 전시되었으며, 한국의 문화재 및 사계절 사진과 식물들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배도운 이사장은 “이번 행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교직원들에게 감사하며, 이번 행사로 인해 한국의 위상과 직스의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치사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코리안데이와 함께 이뤄진 JIKS Open House에 참석한 학부모는 내실있는 한국 교육과정에 놀랐다면서, 내년에 입학하는 아이를 직스에 꼭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점점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직스 코리안데이와 인도네시안데이 행사는 격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인도네시안 데이로 화려하게 다시 돌아 오게 될 것이다.

<동포사회부>



CERAGEM



세라젬 척추온열마사지로 달라지는 내일!

세계에서 매일 250만여 명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라젬은 세계 70여 개국, 2,500여 개의 대리점을 운영중인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매일 250만여 명의 고객분들께서 세라젬 척추온열의료기의 놀라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기업

세라젬과 함께하실 분들을 모십니다.

1

상담문의 0811 9593 111

■ 20년 역사 의료기기 전문기업 세라젬

■ 인체의 중심 척추관리를 위한 척추온열의료기기 개발(1998년)

■ 체험마케팅을 통한 세계 70여개국 네트워크 구축!

■ 척추온열의료기 글로벌 누적판매 250만여대, 업계 1위!

삼포르나 아카데미 환영합니다

인도네시아 최고의 명문그룹 학교재단
유치원 초중고 시설 및 교육은 최고를 자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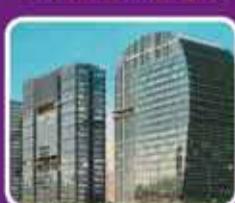
글로벌 경쟁력 지도자 양성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교육 시스템
이미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에 한국학생들이 재학중

SAMPOERNA
UNIVERSITY

SAMPOERNA
ACADE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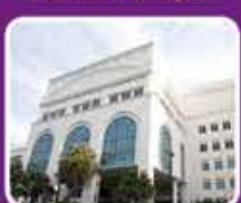
Jakarta Campus



0813 3000 3002

sampoerna.academy.jakarta

Medan Campus



0811 6363 331

sampoerna.academy.med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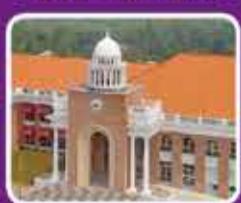
BSD Campus



0811 9530 032

sampoerna.academy.bsd

Sentul Campus



0811 9530 031

sampoerna.academy.sentul

Surabaya Campus



0858 5917 6832

sampoerna.academy.sby

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

Cambridge International School



Diploma
Programme

대학의 경우 영국 미국
교환학생제도 가능
삼포르나 그룹 취업 우선화 고려

〈입학문의〉 "상시입학가능" 한국인 상담환영



TEL : 021)5022- 2234



e-mail : info@sampoernaacademy.sch.id

한일 무역전쟁 긴장, 인도네시아 경제가 위험하다

D katadata.co.id

Econom Peringatkan Perang Dagang Jepang-Korsel Lebih Berisiko Bagi RI

Penulis: Rizky Arika
Editor: Martha Ruth Thertina
07/07/2019, 08:44 WIB

Ketegangan dagang Jepang-Korsel bisa berdampak terhadap investasi dan ekspor Indonesia.



<일본무역보복에 인도네시아 주요 언론은 큰 이슈로 다루고 있다. Katadata지는 '일본-남한 무역 전쟁으로 인도네시아에게 더 위험하다'고 보도했으며, 대부분 주요 언론도 일본과 한국의 무역 긴장은 인도네시아의 투자와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 경제학자들은 한 피트라는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도네시아와는 더 가깝기 때문에 양국의 무역 긴장은 인도네시아의 투자와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한-일 및 외국인 직접 투자가 크기 때문에 한일간의 무역 관계 긴장이 오래 지속된다면 인도네시아경제성장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BKPM)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올해 1/4 분기에 11억 3,000만 달러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 투자 국가 중 3위에 랭크 되어 있으며, 한국은 2억 6,950 만 달러의 투자로 8 위를 차지하고 있다.

피트라는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와 글로벌 가치기준을 구축했는데, 인도네시아는 경제적으로 중국보다 일본에 더 의존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katadata.co.id가 7월 8일 보도했다.

Kontan.co.id

Setelah China dan AS, kini giliran Korsel dan Jepang memulai perang dagang

Kamis, 04 Juli 2019 / 12:25 WIB



REUTERS/CARLOS BARRIA

이같은 상황에 대해 유니클로는 한국 시장에서 연간 1조 4000억원의 대규모 매출을 올리는 최고 황금 시장을 놓친다는 것은 악화된 한-일 국민감정을 떠나 유니클로에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유니클로, 세아 거래 관계 '복원' 정상 거래 합의한 듯

글로벌 SPA 브랜드인 일본 유니클로가 거래를 끊었던 의류 공급선 한국의 세아상역과 거래 관계를 다시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섬유신문에 따르면 일본 유니클로는 연간 1억 달러 내외의 의류 제품을 한국 최대 의류 벤더인 세아상역으로부터 공급받아온 가운데 지난해 불거진 폴라폴리스원단 소재 의류제품의 품질 문제로 클레임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사실상 세아에 오더를 대폭 줄인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대서특필되면서 때마침 일본 정부의 비열한 경제 보복 조치와 맞물려 해석하는 한국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파문이 번지기 시작했고 이 시기와 맞물려 유니클로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유니클로는 한국 시장에서 연간 1조 4000억원의 대규모 매출을 올리는 최고 황금 시장을 놓친다는 것은 악화된 한-일 국민감정을 떠나 유니클로에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가뜩이나 유니클로 불매운동까지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공급선을 단절시킨 데 따른 여론 악화를 깊이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연간 1억달러 내외의 주요 바이어인 유니클로와 갈등관계에 따른 아쉬움이 절실했던 세아상역 입장과 맞물려 최근 양사 관계자들이 폴라폴리스 의류 제품의 클레임 문제를 수습하면서 거래를 정상 복원하자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참조 국제섬유신문>

것이 일본이 한국과 충돌한 이유'라고 전하면서 "한일 양자의 뿌리는 미-중 경제 경쟁이나 안보 문제보다 복잡하다. 이 두 나라는 20세기의 역사가 지나고 있는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1910-1945년의 전쟁과 전시 억압으로 한 국민 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공장의 한국인 근로자 임금 미지불 문제 등 일본의 점령과 관련된 원한을 품고 있다. 한국인들은 일본이 과거의 죄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

SINDOnews - 12일 '일한무역 전쟁, 중국이 이익 낼 것'이라며, 일본 발 '무역 전쟁'이 한국과 점차 확대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 일본이 남긴 공백은 중국 반도체 생산자와 산업이 한국 시장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

KONTAN - 4일 '중국과 미국에 이어 이제는 한국과 일본이 무역 전쟁을 시작'이라며 "수출 통제가 강화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기술 대기업들이 수개월 동안 수출을 늦출 수 있다"면서, "보복이 더 많은 보복으로 이어진다면 한국과 일본 경제에 불행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부>

• Medcom - 16일 "일본-한국 무역 전쟁, 삼성 침 생산 둔화"라는 제호 기사에서, "삼성, SK 하이닉스 등 한국의 침 제조업체들은 스미토모 화학 등 일본 업체에 의존해 왔다. 공장 가동을 때문에 필요한 자재를 얻으려면 다른 회사와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

TEMPO - 14일 '한국과 일본

의 무역 전쟁에 관한 4가지 사항'이라는 제호에서 한일무역 전쟁은 식민지, 수출제한, 화이트리스트, 괴장으로 4가지 분석 기사를 냈다.

•

SINDOnews - 12일 '일한무역 전쟁, 중국이 이익 낼 것'이라며, 일본 발 '무역 전쟁'이 한국과 점차 확대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 일본이 남긴 공백은 중국 반도체 생산자와 산업이 한국 시장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

KONTAN - 4일 '중국과 미국에 이어 이제는 한국과 일본이 무역 전쟁을 시작'이라며 "수출 통제가 강화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기술 대기업들이 수개월 동안 수출을 늦출 수 있다"면서, "보복이 더 많은 보복으로 이어진다면 한국과 일본 경제에 불행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부>

•

Medcom - 16일 "일본-한국 무역 전쟁, 삼성 침 생산 둔화"라는 제호 기사에서, "삼성, SK 하이닉스 등 한국의 침 제조업체들은 스미토모 화학 등 일본 업체에 의존해 왔다. 공장 가동을 때문에 필요한 자재를 얻으려면 다른 회사와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

TEMPO - 14일 '한국과 일본

의 무역 전쟁에 관한 4가지 사항'이라는 제호에서 한일무역 전쟁은 식민지, 수출제한, 화이트리스트, 괴장으로 4가지 분석 기사를 냈다.

•

SINDOnews - 12일 '일한무역 전쟁, 중국이 이익 낼 것'이라며, 일본 발 '무역 전쟁'이 한국과 점차 확대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 일본이 남긴 공백은 중국 반도체 생산자와 산업이 한국 시장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

KONTAN - 4일 '중국과 미국에 이어 이제는 한국과 일본이 무역 전쟁을 시작'이라며 "수출 통제가 강화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기술 대기업들이 수개월 동안 수출을 늦출 수 있다"면서, "보복이 더 많은 보복으로 이어진다면 한국과 일본 경제에 불행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부>

•

Medcom - 16일 "일본-한국 무역 전쟁, 삼성 침 생산 둔화"라는 제호 기사에서, "삼성, SK 하이닉스 등 한국의 침 제조업체들은 스미토모 화학 등 일본 업체에 의존해 왔다. 공장 가동을 때문에 필요한 자재를 얻으려면 다른 회사와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

TEMPO - 14일 '한국과 일본

의 무역 전쟁에 관한 4가지 사항'이라는 제호에서 한일무역 전쟁은 식민지, 수출제한, 화이트리스트, 괴장으로 4가지 분석 기사를 냈다.

•

SINDOnews - 12일 '일한무역 전쟁, 중국이 이익 낼 것'이라며, 일본 발 '무역 전쟁'이 한국과 점차 확대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 일본이 남긴 공백은 중국 반도체 생산자와 산업이 한국 시장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

KONTAN - 4일 '중국과 미국에 이어 이제는 한국과 일본이 무역 전쟁을 시작'이라며 "수출 통제가 강화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기술 대기업들이 수개월 동안 수출을 늦출 수 있다"면서, "보복이 더 많은 보복으로 이어진다면 한국과 일본 경제에 불행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부>

•

Medcom - 16일 "일본-한국 무역 전쟁, 삼성 침 생산 둔화"라는 제호 기사에서, "삼성, SK 하이닉스 등 한국의 침 제조업체들은 스미토모 화학 등 일본 업체에 의존해 왔다. 공장 가동을 때문에 필요한 자재를 얻으려면 다른 회사와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

TEMPO - 14일 '한국과 일본

의 무역 전쟁에 관한 4가지 사항'이라는 제호에서 한일무역 전쟁은 식민지, 수출제한, 화이트리스트, 괴장으로 4가지 분석 기사를 냈다.

•

SINDOnews - 12일 '일한무역 전쟁, 중국이 이익 낼 것'이라며, 일본 발 '무역 전쟁'이 한국과 점차 확대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 일본이 남긴 공백은 중국 반도체 생산자와 산업이 한국 시장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

KONTAN - 4일 '중국과 미국에 이어 이제는 한국과 일본이 무역 전쟁을 시작'이라며 "수출 통제가 강화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기술 대기업들이 수개월 동안 수출을 늦출 수 있다"면서, "보복이 더 많은 보복으로 이어진다면 한국과 일본 경제에 불행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부>

•

Medcom - 16일 "일본-한국 무역 전쟁, 삼성 침 생산 둔화"라는 제호 기사에서, "삼성, SK 하이닉스 등 한국의 침 제조업체들은 스미토모 화학 등 일본 업체에 의존해 왔다. 공장 가동을 때문에 필요한 자재를 얻으려면 다른 회사와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

TEMPO - 14일 '한국과 일본

의 무역 전쟁에 관한 4가지 사항'이라는 제호에서 한일무역 전쟁은 식민지, 수출제한, 화이트리스트, 괴장으로 4가지 분석 기사를 냈다.

•

SINDOnews - 12일 '일한무역 전쟁, 중국이 이익 낼 것'이라며, 일본 발 '무역 전쟁'이 한국과 점차 확대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 일본이 남긴 공백은 중국 반도체 생산자와 산업이 한국 시장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

KONTAN - 4일 '중국과 미국에 이어 이제는 한국과 일본이 무역 전쟁을 시작'이라며 "수출 통제가 강화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기술 대기업들이 수개월 동안 수출을 늦출 수 있다"면서, "보복이 더 많은 보복으로 이어진다면 한국과 일본 경제에 불행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부>

•

Medcom - 16일 "일본-한국 무역 전쟁, 삼성 침 생산 둔화"라는 제호 기사에서, "삼성, SK 하이닉스 등 한국의 침 제조업체들은 스미토모 화학 등 일본 업체에 의존해 왔다. 공장 가동을 때문에 필요한 자재를 얻으려면 다른 회사와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

TEMPO - 14일 '한국과 일본

의 무역 전쟁에 관한 4가지 사항'이라는 제호에서 한일무역 전쟁은 식민지, 수출제한, 화이트리스트, 괴장으로 4가지 분석 기사를 냈다.

•

SINDOnews - 12일 '일한무역 전쟁, 중국이 이익 낼 것'이라며, 일본 발 '무역 전쟁'이 한국과 점차 확대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 일본이 남긴 공백은 중국 반도체 생산자와 산업이 한국 시장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

KONTAN - 4일 '중국과 미국에 이어 이제는 한국과 일본이 무역 전쟁을 시작'이라며 "수출 통제가 강화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기술 대기업들이 수개월 동안 수출을 늦출 수 있다"면서, "보복이 더 많은 보복으로 이어진다면 한국과 일본 경제에 불행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부>

•

Medcom - 16일 "일본-한국 무역 전쟁, 삼성 침 생산 둔화"라는 제호 기사에서, "삼성, SK 하이닉스 등 한국의 침 제조업체들은 스미토모 화학 등 일본 업체에 의존해 왔다. 공장 가동을 때문에 필요한 자재를 얻으려면 다른 회사와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

TEMPO - 14일 '한국과 일본

의 무역 전쟁에 관한 4가지 사항'이라는 제호에서 한일무역 전쟁은 식민지, 수출제한, 화이트리스트, 괴장으로 4가지 분석 기사를 냈다.

•

SINDOnews - 12일 '일한무역 전쟁, 중국이 이익 낼 것'이라며, 일본 발 '무역 전쟁'이 한국과 점차 확대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 일본이 남긴 공백은 중국 반도체 생산자와 산업이 한국 시장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

KONTAN - 4일 '중국과 미국에 이어 이제는 한국과 일본이 무역 전쟁을 시작'이라며 "수출 통제가 강화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기술 대기업들이 수개월 동안 수출을 늦출 수 있다"면서, "보복이 더 많은 보복으로 이어진다면 한국과 일본 경제에 불행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부>

•

Medcom - 1

인도네시아 주간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신한은행인도네시아 제공

20% 법인세가 올해 시행될 가능성성이 높지 않음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법인세를 25%에서 20%로 낮추는 것이 기한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율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조코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재무부의 세금 총괄인 Robert Parkpaha은 세율을 인하하려면 2007년 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의회 상정 및 승인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앞으로 올해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Robert는 말하였다.

인도네시아 세정센터의 대표인 Yustinus Prastowo는 정부가 의회를 통해 세율 인하 방안을 제출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세율 인하 안에 대한 공공 자문을 수행해야만 하며 의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공공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정부, 보험업에서 외국인 소유지분의 ‘기득권 인정’을 제안

재무부는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 회사들에 대해서 “기득권을 인정”하거나 정부령 제 2018-14호의 적용 대상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배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는 외국인 자본 한도 80%를 규정하고 있는 정부령(PP)를 살짝 손볼 예정입니다.”라고 Sri Mulyani 재무장관은 지난 화요일(2일) 있었던 11차 의회 청문회의 검토회의 자리에서 말하였다. 이미 보험회사에 대해서 80% 이상의 외국인 참여자들은 기득권을 인정받거나 정부령의 예외를 적용 받을 것이라고 재무장관은 말하였음. 해당 정부령은 보험회사에 대해 외국인들이 보유할 수 있는 소유를 납입 자본금의 80%로 제한해두고 있다.

인도네시아, 성장을 위해 해양도 바라봐야

“인도네시아의 신뢰감 있는 경제 운영을 그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World Bank의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담당자인 Rodrigo A Chaves가 말하였다. “2013년에 있었던 테이퍼 텐트럼 때보다도 더 큰 규모로 있었던 2018년에 이며징 시장에서의 자본 이탈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경제는 굳건 하였으며, 2018년 9월 기준으로 빈곤률을 97%라는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현 레벨에서 성장을 가속화하려면, 인도네시아는 구조개혁을 더 지속해 나가고 굳건한 재정, 통화정책을 동반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자카르타,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해 재권 발행 계획

자카르타 행정부가 정부가 승인한 571조 루피아(\$403.5억)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자본 조달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자카르타 주지사인 Anies Baswedan은 자카르타 행정부가 지방채의 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것이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였다. “지방채 발행은 연구 중입니다.”라고 지난 화요일(2일) Anies 주지사는 kontan.co.id를 통해 발표하였다. 그는 발행 규모 등과 관련한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진 않았다.

571조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개발하자는 계획의 결정은 지난 3월 제한된 내각회의에서 논의되었는데 여기에 Anies 주지사도 참석하였다. 조코위 대통령은 대부분이 대중 교통과 관련한 프로젝트로 이뤄진 해당 프로젝트가 다음 10년 내에 완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Anies 주지사는 계획된 프로젝트들이 장기간 계류되어온 상수도망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서 수돗물의 품질을 높이고 도시의 커버리지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말하였다.

새로운 인도네시아-일본 협약이 2019년 말에 완료될 예정

인도네시아와 일본 정부는 현재 양국간의 새로운 경제 협력 협정을 위해서 작업 중이며 올해 말까지 협약을 완료시키려고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일본 경제 파트너십 협정의 일반 리뷰(GR-IJEP)에 대한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의지는 지난주 G20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조코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사이의 회담에서 확인되었다. “양국 정상들이 GR-IJEP를 완료하는 것이 양국간 중요한 무역관계에서 시급성 있는 이슈임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양국 정상회담에 동반한 무역부 장관 Enggartiasto Lukita가 지난 수요일(7/3) 얘기하였다.

회담 동안 양국 정상은 대표단에게 의정서 수정안의 완성을 조속히 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음. GR-IJEP 협상의 지속에 대해 논의하는 것과 별개로, 조코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또한 올해 RCEP 협정을 완료하는 것에 협력하는 의사를 교환하였다.

RCEP는 10개 ASEAN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거기에 중국, 인도,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고 있어 전세계 GDP의 38%를 차지하고 전세계 무역량의 25%를 차지하는 광범위한 무역 협정이다.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6월 말에 만나서 GR-IJEP 협정의 완성을 위한 몇 가지 요구사항들을 교환하였다고 Enggartiasto 장관은 말하면서 인도네시아에 있어 GR-IJEP를 종결하는 것이 글로벌 무역 마찰 상황에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GR-IJEP 협정은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6월 17일부터 7월 18일까지 루피아화 환율 그래프. 최근 루피아화가 강세로 전환된 가운데 7월 18일에는 달러당 13,950루피아에 거래되고 있다>

데,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에 대한 내용, 고용, 투자 및 원산지 표기에 대한 내용, 지적재산권 및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장관은 덧붙였다. “상품과 서비스의 무역에 대해서 더 많은 접근권한을 여는 것과 별개로 IJEP는 또한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의 방법을 찾는 것도 다를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재무장관, 2018년 정부 예산 ‘안전’ 했다고 평가

재무장관 Sri Mulyani Indrawati는 지난 화요일(7/2) 2018년 국가 정부 예산이 2694조 루피아 적자를 기록하여 GDP의 1.81%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것은 정부의 예상 목표인 GDP 대비 3% 적자를 크게 하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해당 적자는 또한 연간 재정 적자 목표에서 정하였던 2.1%보다도 더 낮으며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적자였음. “2018년 재정 적자는 안전한 수준입니다.”라고 Sri Mulyani 장관은 2018년 재정 수입 및 지출과 관련한 정부의 의회 승인을 득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대부분의 재정 적자는 국내 자본시장을 통해서 이뤄졌으며(302.7조 루피아), 외국인들을 통한 자본 조달은 3.2조 루피아 수준이었다. 2018년 재정은 이에 따라 36.2조 루피아의 비사용 자금을 이용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종근당, 인도네시아 항암제 공장 준공 글로벌 진출 가속화

- ▶ 인도네시아 GMP 및 할랄 인증 획득...올해 하반기 상업 생산 시작
- ▶ 인도네시아 교두보로 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유럽 시장 진출 목표

종근당(대표 김영주)이 인도네시아에 항암제 공장을 준공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종근당은 9일 인도네시아 치카랑에서 협작법인 'CKD-OTTO'사의 항암제 생산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식에는 닐라 파리드 모에로에크(Nila Farid Moeloek)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 장관, 페니 루키토(Penny Lukito) 식약처장,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종근당 이장한 회장과 김영주 사장, 인도네시아 협작사인 멘사그룹 지미 수다르타(Jimmy Sudharta) 회장 및 인도네시아 제약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종근당은 2015년 9월 인도네시아 제약사인 오토사와 협작법인 CKD-OTTO를 설립했다. 2016년 7월 자카르타에서 50km 거리에 위치한 치카랑 산업단지(Cikarang Industrial Estate)에 항암제 생산 공장을 착공하여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GMP 승인을 획득했다. 올해 2월에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의결기구인 울레마협회(MUI, Majelis Ulama Indonesia)로부터 할랄(HALAL) 인증을 받아 인도네시아 최초 할랄 인증 항암제 공장으로 준공했다.

CKD-OTTO 항암제 공장은 3천만 달러를 투자해 연면적 12,588m² 규모의 지상 2층 건물로 건립됐다. EU-GMP 수준의 시설을 갖췄으며 연간 약 160만 바이알을 생산할 수 있다. 종근당의 제품 생산기술과 운영시스템을 이전하여 시험생산을 완료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항암제 젬시타빈과 파클리타셀의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주요 항암제의 품목허가를 추가로 받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종근당이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로 인도네시아를 선택한 것은



<지난 7월 9일 'CKD-OTTO'사의 항암제 공장 준공식에서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CKD-OTTO 백인현 대표이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 종근당 이장한 회장, 닐라 파리드 모에로에크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 장관, 멘사그룹 지미 수다르타 회장,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

현지 의약품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눈여겨 보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수가 약 2억 7천만명의 달하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으로 제약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8조원에서 2023년 약 13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의약품을 유통, 판매하려면 생산설비를 갖춘 현지회사와 협력해야 하고, 5년 이내에 해당 의약품의 기술 이전을 통해 현지에서 제조할 수 있도록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진입 장벽이 높다.

종근당은 자국에 생산설비를 갖춰야 시장 진입을 허용한다는 인도네시아 법령에 따라 생산시설의 현지화 전략을 선택했다.

인도네시아의 항암제 시장은 약 2,300억원 규모로 연평균 38% 이상 성장하고 있지만 항암제 주사제 시설은 공정년이도가 높아 현지 생산업체도 많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 항암제 공장을 준공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항암제 시장에서 1,300억원 규모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포독성 항암제 시장을 타깃으로 삼아

종근당의 연구개발 기술로 개발한 항암제를 인도네시아 시장에 공급하게 된다.

종근당은 할랄 인증까지 획득한 항암제 공장을 향후 20억 인구에 달하는 이슬람 국가들을 비롯해 아세안경제공동체(AEC)로 진출할 수 있는 거점으로 삼을 전략이다.

향후에는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북아프리카와 유럽까지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종근당 이장한 회장은 "인도네시아는 시장규모와 성장성이 큰 기회의 시장"이라며 "항암제 공장이 산업생산을 시작하는 올해를 종근당의 글로벌 진출 원년으로 삼아 세계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닐라 파리드 모에로에크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 장관은 "CKD-OTTO 항암제 공장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고품질의 의약품을 보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CKD-OTTO 사가 인도네시아 제약산업의 발전과 더 나아가 의약품 수출을 통한 인도네시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업인을 위한 THE 101 Jakarta Sedayu Darmawangsa 호텔...영화상영



지난 7월 5일, 40명의 기업인들은 라이브 음악 반주에 맞춰 Jakarta Sedayu Darmawangsa 101호텔에 위치한 Tos.ca 야외 라운지에서 초대되었다. 기업 특별 투숙객은 독서실과 같은 여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날 모임에서 초청 손님들은 핫도그, 햄버거, 피자 등 간식을 제공받았다. THE 101 Jakarta Sedayu Darmawangsa 호텔 회의실은 음식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인 영화관으로 변모시켰다. 이날 게스트들은 코미디 단편 영화를 보았다.

101 Sedayu Darmawangsa Jakarta의 Executive Assistant Manager인 Eva Rosdiana는 "Holiday on Cruise 프로그램은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연장 했으며 가장 많이 예약한 회사를 위한 보상 프로그램이다. 크루즈 선박에서 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OECD-인도네시아와 공동컨설팅사업 보고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주한 'OECD-인도네시아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 최종보고회를 8일 자카르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인도네시아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KSP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수행과제였던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전략적 구매자로서 보험자 기능강화, 의료 전달체계 강화에 관한 주제별 연구결과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인니 국가개발계획부, 보건부, 재무부, 사회보장위원회, 건보공단, 학계 등 다양한 기관의 보건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재정건전성 확보 수단인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한국의 전략을 소개했



다.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 보건부, 재무부, 사회보장위원회, 건보공단, 학계 등 다양한 기관의 보건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재정건전성 확보 수단인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한국의 전략을 소개했

**HYUNDAI
MATERIAL HANDLING**
www.hyundai-mh.com

PT. HD FORKLIFT INDONESIA
Hyundai Official Agent

**25.30
35B-7A**



현대 전동지게차 경제형 모델 출시 인도네시아 최초 리튬밧데리 판매시작

2톤, 2.5톤, 3톤, 3.5톤 Counter Balance (4휠 타입)

- ▶ Economic Price : 동급 경쟁사 대비 경쟁력있는 가격
- ▶ High Quality : 현대 기술력의 고품질
- ▶ Baru Service : 검증된 무상점검 순회서비스 since 2013
- ▶ 보증기간외 현대지게차 영구 사용시까지 매2개월마다 무상점검서비스 제공



PT. HD FORKLIFT INDONESIA

Marketing PIC : Ms. Ayu (0812 9597 2720)
After Service PIC : Ms. Siti (0813-3307-7913)
Korean Desk PIC : Mr. Park (0821-2534-3214)

Korea Style Service
프로그램



매월 1회 무상점검 서비스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부품공급 48시간 이내 완료

1 무상보증기간 1년 또는 1,500시간
Free Rental 납기지연, 부품지연시 무상렌탈
구형지게차 매입서비스

자사고가 없어진다고?

글. 박수민/BINUS 11학년

최근 상산고를 시작으로 경희고, 이대부고 등 자사고들이 연이어 자사고 재지정 취소 판정을 받았다. 전국 24개의 자사고 중 총 11곳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가 되었고, 이는 자사고 존폐 여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공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을 자아냈다.

‘자사고’는 자율형 사립고등 학교의 약자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10년 처음 도입되었다. 그리고 자사고는 교육과정, 수업 일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고와 차이를 갖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사고가 주진 목적과는 다르게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다. 지난 10여년간 자사고와 외고 등은 우선 선발권을 통해 전국 중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뽑아왔다. 그 결과, 대학 진학률이



높은 자사고 외고 등을 중심으로 고등학교가 수직서열화 되었다. 자사고 반대 측은 이와 같은 고교서열화가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고, 특정학교에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더불어, 이들은 자사고를 처음 만들었을 때 목적은 특정학교에게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었겠지만 교육의 장이 아니라 단순히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린 자사고는 변화를 맞아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반면, 자사고를 찬성하는 측은 자사고 폐지는 교육 선택권의 침해라고 주장한다.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은 예술고등학교를 가고, 요리를 잘하는 학생은 조리고로 진학을 하는 것처럼, 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일반고등학교보다 더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자사고로 진학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자사고 찬성 측은 자

사고가 일반고에 비해 더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했다고 이를 불평등이라 규정한다면, 예고나 과학고가 제공하는 교육 환경 또한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문제의 중심인 학생 중 하나로서 나는 두 주장에 모두 공감을 하였다. 그러나 해외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서 과연 내가 이 문제에 대해 말할 권리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와 가깝지만 동떨어진 학생으로서 교육 정책과 같이 중대한 사안에는 정치가 개입하면 안된다는 것을 빼저리게 느꼈다.

기사를 쓰기 위해 조사를 할

때, 현 정부와 정치적으로 반대 진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교육 정책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기사를 많은 언론들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기사들은 자사고 존폐여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자사고 죽이기’와 같이 감정적인 단어들을 사용하여 분열을 조장하고, 독자들에게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감을 유도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미래와 같이 중요한 문제를 사사로운 정치적 감정에 얹매여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학생들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사고 폐지에 문제점이 있다면 일방적

교육의 배경

글. 김현아/ SIS KG 10학년

‘학교’라는 개념은 비교적 새로운 것이다. 인간, 즉 호모 사피엔스가 존재해온 세월은 약 20만년이지만, 학교나 정식 교육 체계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몇 천년 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물론, 정식 학교가 생기기 이전에도 교육은 항상 존재해왔다. 수렵 채집 사회의 아이들은 자신의 환경을 탐험하고 그 안에서 놀면서 지식을 터득했다. 이들에게 놀이와 탐험은 자연스러운 교육의 방식이었다.

농경사회, 그리고 산업사회가 형성되자, 놀이와 탐험보다는 꾸준한 노동이 중시되었다. 대부분

의 노동은 아이들이 헤낼 수 있을 만큼 간단하고 반복적인 일이었기에, 많은 아이들이 노동의 현장에 들어가고 많은 아이들이 적은 임금, 힘든 노동, 그리고 어른들의 구타에 시달리다 죽었다.

교육은 그저 아이들을 고분고분하고 말을 잘 듣는 좋은 노동자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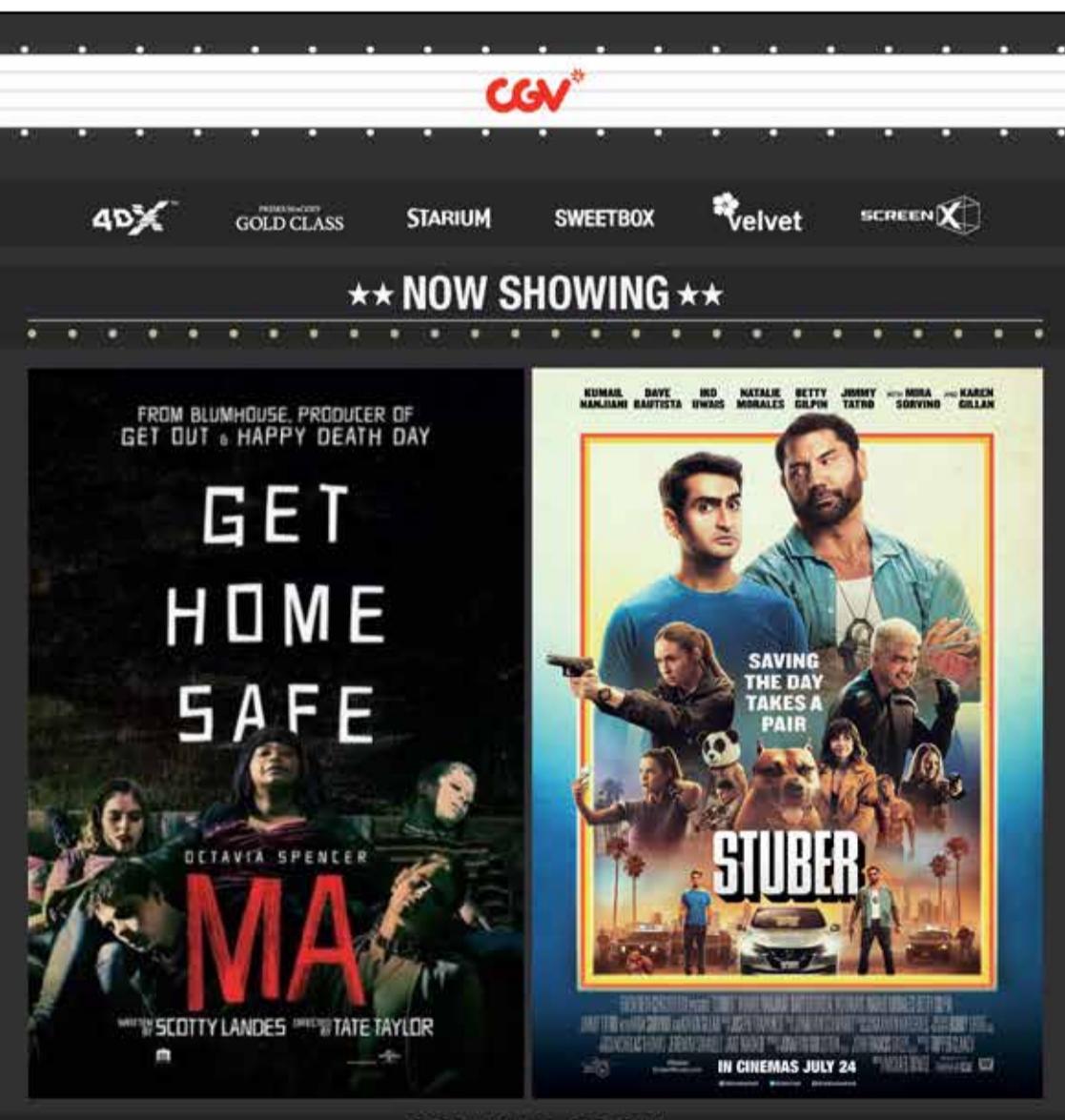
이때쯤, 사회 상류층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가 형성되었다. 아마도 최초의 학교는 후에 메소포타미아가 된 이집트의 수메르 지역에 있었을 것이다. 이 학교는 왕족, 그리고 부잣집이나 전문가들의 아들들이 다녔다고 한

다. 나머지 남자아이들은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거나 견습생으로 일을 배웠고, 여자아이들은 집안일을 배웠다고 한다. 점차적으로 사회 하류층의 아이들도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문제는, 교육이 아이들의 놀이와 탐험이라는 인식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그저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 공부는 이름만 딸 뿐, 또 다른 식의 아동 노동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현장의 구타 혹은 가혹행위가 교육 현장인 학교로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최근에 와서 학교 체벌은 불법

이 되어 거의 없어졌지만, 공부가 아이들의 또 다른 노동이라는 인식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이만으로는 아이들이 세상을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공부는 당연히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이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공부와 놀이는 이미 완전히 격리되었다.

아이들이 외부 영향 없이도 공부를 즐기고 배움을 중시하려면, 공부는 놀이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금의 교육 체계를 재해석하고, 완전히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바비굴링 (Babi Guling)

글. 이하얀/GMIS 11학년



발리는 인도네시아 영토이면서 관광으로 잘 알려진 섬이다. 발리는 다양한 민족, 종교, 전통, 음식 등으로 유명하다. 그중 발리의 대표적 음식은 바비굴링이다.

‘바비’는 데지라는 뜻이고 ‘굴링’은 돌린다 라는 뜻이다. 발리의 전통 음식 바비굴링은 새끼 돼지 배 안에 향신료와 각종 야채를 넣어 통째로 굽는 요리이다. 돼지를 불 위에 굴려 굽는 것은 껍질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게 만드는 비법이다.

밸리에서는 직화구이를 할 때 야자 열매 말린 껌데기를 사용한다. 이것은 연기와 함께 훈연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비굴링 역시 야자 열매 껌데기로 몇 시간에 걸친 훈연 작업을 통해 완성된다.

처음 바비굴링은 전통적인 의식과 종교의식을 위한 의식 행사에서 사용됐지만, 현재 바비굴링은 레스토랑 및 일부 호텔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발리 사람들에게 바비굴링은 죽제의 한 죽이자 삶의 연회 같은 것이다.

발리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바비굴링 또한 한국의 각종 프로그램에 언급되며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 호불호가 극히 나뉘는 음식으로 보인다.

단, 한권이라도 3일내에 보내드립니다

- 각종 도서 출판물 수입 공급 안내
- 주간지 월간지
- 각종 단행본 도서물
- 각종 인쇄 출판물
- 교재 및 학습지

정식통관 세금 100% 지불하면 더 싸고 빠릅니다.

출판물 신문 특송업체
TIGA BINTANG JAYA
021-4586-9198, 08121004999

당뇨와 관한 5가지

글. 김현아/ SIS KG 10학년



매년 인도네시아의 당뇨병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도 특별한주의가 필요한 질병 중 하나다. 2017년 국제당뇨병협회(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의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당뇨병 환자 수가 6 위를 차지했다. 인도네시아는 약 1천20만명의 사람들 중 당뇨병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당뇨병률은 6.2 %로, 17명 가운데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제당뇨병협회 2017년 자료에 따르면 노인뿐만 아니라 35-39세의 20명 중 1명, 40-44세의 12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1. 전세계적으로 약 4억명이 당뇨병 환자이고, 그 숫자는 계속 늘고 있다. 2012년도에는 전세계적으로 약 150만명이 당뇨병으로

사망하고, 약 220만명이 당뇨 합병증으로 사망한 만큼, 당뇨병은 세계 주요 사망원인이기도 하다.

2. 당뇨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진다: 제 1형 당뇨병, 그리고 제 2형 당뇨병. 제 1형 당뇨병은 몸이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병이다. 제2형 당뇨병은 몸이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지 않거나, 인슐린을 쓰지 못해서 생겨난다(인슐린 내성). 실제로 2형 당뇨병은 젊은 사람들에게서 점점 더 많이 발견된다. 이것은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 신체 활동의 저하, 비만 증가와 불기분의 관계가 있다.

3. 제3형 당뇨병이라 불리는 것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뇌가 인슐린 내성을 가지고 있어서 치매를 일으키는 경우이다. 제3형 당뇨병은 아직 확실하게 검증되

진 않았다.

4.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생산되는 호르몬으로, 몸의 세포들이 혈당을 사용해 에너지를 만들거나, 혈당을 변형시켜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몸의 혈당 농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제1형 당뇨병의 경우,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만들지 못한다.

5. 당뇨병은 완치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찍 발견하고 제대로 관리한다면 당뇨병 환자라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적절한 운동, 식습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는 것 모두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또한, 당뇨병 환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합병증을 미리 예방하고, 담배를 멀리해야 한다.



한상재의 누산따라 뉴스데스크

NUSANTARA NEWS

*외부 필자 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대기오염

우기가 끝나고 건기로 들어 선 인도네시아는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자바(Jawa) 섬 전체와 브리, 그리고 NTB와 NTT 지방이 최악인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질기상청은 지난 2015년 당시 가뭄만은 못하지만 작년보다는 좀 더 빨리 가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각인선에 고민

조코위-마魯(Maruf) 인도네시아 대통령 부통령은 어떻게 하면 브라보워(PRBW) 측을 지지하는 40% 이상의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끌어 낼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 내각에 누굴 임명하느냐 하는 것과 어느 당에 몇 석의 장관 자리를 배정하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 비가 내릴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지난 주 한때 서부자바에만 비가 내렸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인공강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공강우를 실시하고 싶어도 구름이 조금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처

럼 구름도 한 점 없고 바람만 부니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때는 이때 생각하고 집 주변 쓰레기를 태우기 바쁘고 농민들은 벗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극심한 가뭄이거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바깥 공기는 점점 더 나빠져 아예 뿐만 보이고 있습니다.

다. 바로 KPK 위원장 선임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외적 이슈이고 속으로는 어떤 당근을 빼보워(PRBW)와 야당에 내주고 그들을 끌어 안고 가느냐 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는 아직 없

는가 봅니다. 그저 조용한 채 시간만 가고 차기 장관에 누가 선임될 것인지 여전히 블랙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는가 봅니다. 그저 조용한 채 시간만 가고 차기 장관에 누가 선임될 것인지 여전히 블랙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술라웨시 비뚱(Bitung) 경제특수공단

조코위 대통령이 지난 5일 북술라웨시 비뚱(Bitung) 특수경제 공단을 끼고 있는 항만 건설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대통령은 비뚱(Bitung) 특수경제 공단이 잘 돌아가게 되면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인프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니다. 비뚱(Bitung)은 수심이 깊어 국제항으로서의 비전이 큰 항구입니다만 큰 배들은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많이 잡히고 있는 고등어류 통조림 공장이 많은 통조림 수출항이라고 할 수 있겠

1차산업 수출기업 금융관리 단속

재무부 장관은 수출을 하고도 달러를 외국 어디에 두고 국내로는 반입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수출 기업들은 일정한 별과금을 매길 것이라고 합니다. 석탄과 같은 광물수출업체나 목재 혹은 수산물 수출업체가 수출 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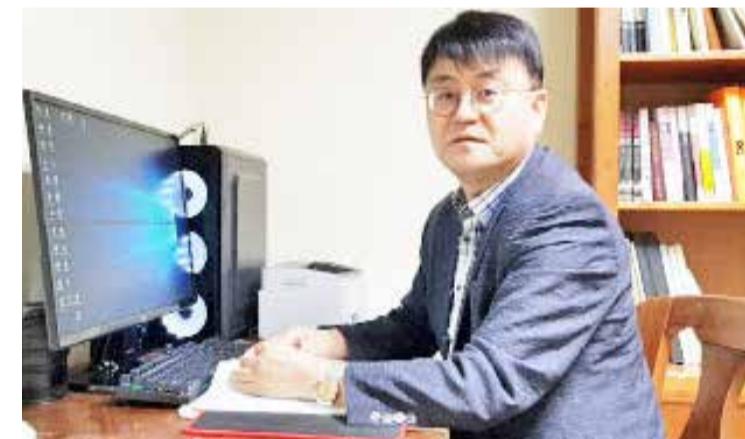
를 적용하고 Escro Account를 열지 않았거나 Escro 구좌 중국 구좌로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해외 구좌에 두고 있는 기업도 관세법 위반을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치지 않은 기업에게도 0.25%를 적용하고 Escro Account를 열지 않았거나 Escro 구좌 중국 구좌로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해외 구좌에 두고 있는 기업도 관세법 위반을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자카르타 대구사무소 박성호 소장

인니, 中시장 대체할 잠재력 크다… 대비책 세워야

인구 세계4위 · 1인당 국민소득 높아
창업생태계 훌륭하게 구축된 국가
화장품 · 식품 · 펍테크 업종 적합해
인니 수처리시장 블루오션 가능성
대구 우수 물기업 진출 중요 과제



<초대 자카르타 대구사무소 박성호 소장>

대구시는 지난달 말 자카르타에 대구사무소를 개설했다. 초대 대구사무소 소장으로 중책을 맡은 박성호 소장은 개인적인 인연으로 인도네시아에 흥미를 갖게 돼 스스로 지원해 현지 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무대로 대구의 날개를 더욱 넓히고 있는 박성호 소장을 만나봤다.

△인도네시아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1991년 8월부터 대구시 북구 정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2009년 북구보건소 근무 당시 경북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UGM 학생 Rio(리오)를 만나면서 관심을 갖게됐다. 우체암, Universitas Gadjah Mada(UGM) 가자마다 대학교)는 족자카르타주에 있는 인도네시아 제2의 대학으로 조코위도도 현 대통령을 배출한 우수한 대학교다.

도네시아를 방문하기도 했다. 일단 어학연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2011년 인도네시아 대학교(인도네시아 제1 대학)에서 어학연수 과정을 국외유학으로 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매년 2회 이상 인도네시아 현지를 방문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다.

△자카르타 현지 생활의 장점과 단점은.

-늘 웃음기 있는 얼굴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참 좋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함께 있어서 느긋하게 일정을 잡고, 시간을 활용하는 분위기가 한국과 다르다.

교통비, 식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인도네시아에서 물가가 비싼 자카르타도 대구 물가대비 60%정도 수준이다.

단점은 교통체증이 출퇴근 시간대에 엄청나 7~10km 거리에 40분~1시간 이상이 걸린다. 한국 같아 깨끗한 식수가 공급되지 않아 항상 팩킹이 된 물을 구입해 음용수로 사용해야 한다. 한국은 야채를 물로 바로 세척해 먹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배탈이 크게 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발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나라는 최근 신남방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신남방 지역에 속하는 국가들이 경제성장 속도가 높아서 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도 있지만, 중국과 미국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교류를 다변화하려는 목적으로 있다.

아세안 10개국 중에서도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6천만 명에 경제규모(GDP)가 아세안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중심 국가이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으로 진출을 많이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베트남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1천 달러 이상 높고 인구도 2.5배나 많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시장이 앞으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대구시가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와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하는지.

찌레본(Cirebon) 신공단 조성

요즘 부쩍 뜨기 시작하는 찌레본(Cirebon)은 주변의 마잘렝까(Majalengka)와 인드라마유(Indramayu) 등과 함께 신공단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찌레본 석탄발전소 농사를 조성으로 인해 말이 많습니다. 발전소를 건설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건설사로 부터 거액의 농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찌레본(Cirebon) 전군수는 이미 KPK 구속수사를 받고 있고 농사를 준 한국 건설사에

대하여는 아직 어떤 죄목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나 군 당국은 한국 건설사에 대해 건설은 그대로 계속하되 뭔가는 처벌을 하고 환경 평가를 민원을 보완할 점이 나오면 그걸 보완해 주는 선에서 마무리 할 것이라고 하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시간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인 찌레본(Cirebon) 군은 신임군수의 취임을 기회로 새로운 찌레



글: 한상재/ 칼리스트

본(Cirebon)의 이미지를 전통 종국 두부산업에서 찾고 있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단계인데 앞으로 3개월 이내 디자인이 끝나면 그때 가서 공식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계 회사 외에도 일본계 회사들이 투자문의를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찌까랑(Cikarang)에 소재하고 있는 일본계 회사들이 아직 디자인 중인 찌레본(Cirebon) 삼각공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모두 1,800개 일본계 회사가 있는데 그 중 700개 회사가 서부자바 주에서 가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르바나(Rebana) 경제특구 삼각공단
찌레본(Cirebon), 빠림반(Patimban) 항구,
고르자파티(Kertajati) 국제공항

리드완 카밀(Ridwan Kamil) (Majalengka) 시를 연결하는 삼각형 도시공단을 조성하는데 있어 가능하면 한국계 기업을 주로 초청해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봉제공장들은 의미가 없고 Lotte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이 적합할 것 같다는 것이죠. 연산 30만 대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가 오면 벤더(Bendor)만 해도 30개 회사가 따라와야 하는 부수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카르타 자동차 훌쩍제 시간 연장 검토

자카르타 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훌쩍제 시간을 지난 아시안 게임 때처럼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저녁엔 4시부터 밤 8시까지 연장할 경우 무슨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지 각 분야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화물 트럭이나 자동차 등 일반 시민들의 불편까지 조사를 하고 있

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훌쩍제 시행 시간을 좀 더 늘리게 되면 당연히 시민들의 불편함이 그만큼 더 증가겠지만 그대신 지금과 같은 교통혼잡은 좀더 줄어 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무조건 좋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화물 트럭이나 자동차를

가진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카르타 시 당국은 시간을 좀 더 연장할 것 같습니다. 훌쩍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명분일 뿐이 때문입니다. 결국 자카르타 시 당국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훌쩍제로 결정하고 지난 주말부터 시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보고르(Bgr) 시 외곽 고속도로 마비

지난 주 수요일, 보고르(Bgr) 시 외곽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보고르(Bogor) 일대의 교통이 거의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센룰 슬라탄(Sentul Sel)에서 나가 보고르(Bgr)와 빠릉(Parung) 쪽으로 가는 JORR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일부들이 교각 시멘트 상판을 올리는 과정에

서 그만 그 상판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아직까지도 보고르(Bgr) 시 전체 도로가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協

"한국 기업 印진출 도와요"

박람회 · 바이어 매칭 등 적극 지원



<아당 수칸다르(왼쪽) 인도네시아 프랜차이즈협회장과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이사인 이종근 웰스에프앤비 부사장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프랜차이즈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최근 자카르타 컨벤션센터에서 인도네시아프랜차이즈협회(Asosiasi Franchise Indonesia(AFI))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국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교류 확대를 위해 협력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인도네시아에 현재 적합한 업종은 화장품, 식품, 헬스케어, 스마트산업, 페트로, 관광 등이다. 자카르타와 위성도시간 경량전철(LRT)을 건설하고 있어 조코위 2기 정부가 마무리되는 2024년 말이면 대대적인 물류, 교통의 혁신이 예상된다.

지역간 이동이 활발해 지면 한국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질 것으로 보여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면 진출의 기회를 훨씬 빨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신문>

광고 및 구독 문의

HanInPost

PT.HanInPost Indonesia
Tel: 021-4586-9199, 4586-9057
Fax: 021-4586-9198, HP.0812-1004-999
e-Mail: haninpost@gmail.com
www.haninpos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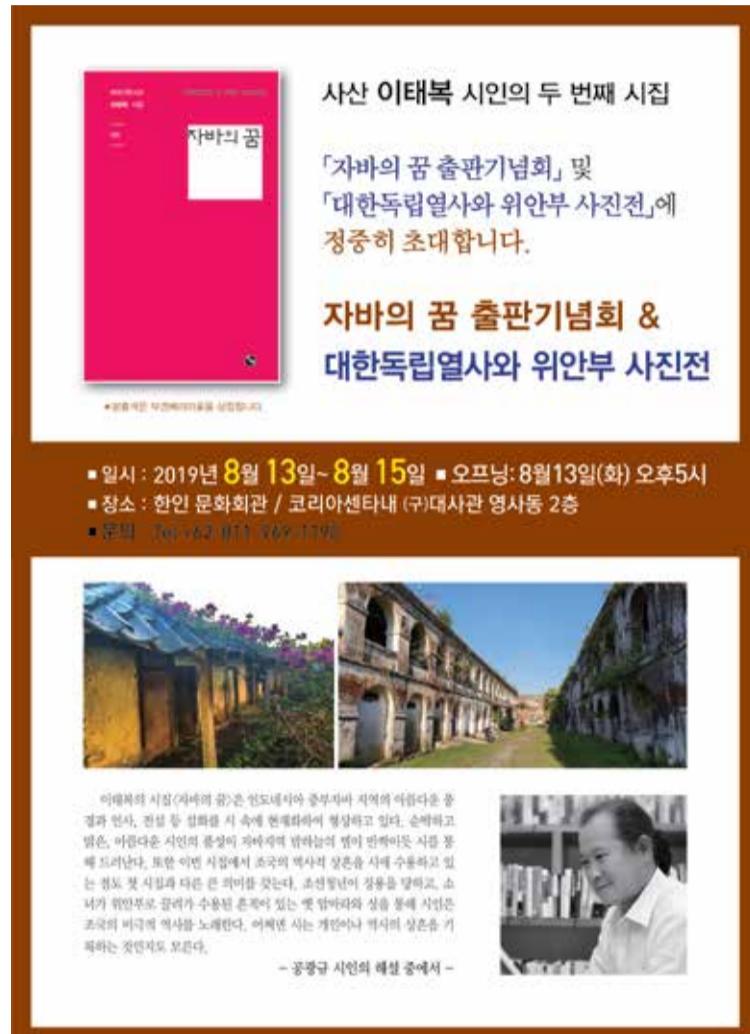


[신간도서]

자바의 꿈

이태복 지음

130*210 | 130쪽 | 9,000원 | 2019년 7월 18일 펴냄
시산맥사 | ISBN 979-11-6243-067-5 03810



[추천글]

이태복 시인은 “정들어 고향이 된 자바 땅에”(「적도 나무꾼 일기」) 동지를 틀고 하늘의 별자리를 바라보고 마을의 전설을 듣는다. 자바 아이들의 고무줄놀이를 구경하고 가를란 음악을 듣고 오래 익은 술 같은 이웃들과 함께 살아간다.

일제가 식민지 여성들을 위안부로 짓밟은 역사를 암바라와 위안소에서 확인하며 일찍이 박인한 시인이 조선과 인도네시아 민중들에게 제국주의 국가들에 맞서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박인환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주는 시」) 우자고 촉구한 목소리도 새긴다.

결국 이태복 시인은 자연에 겸손하고 사람들과 나눌 줄 알고 역사의식을 가질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돈의 종」(「살라띠가의 가을」)에서 벗어나 “달려도 달려도 끝없는/ 누런 들녘”(「1월 자바 들녘」)에서 민들레 같은 능부로 피었다 지는 꿈을 가지고 있는 시인은 한없이 행복하다. “호야불로 작은 등대를 세우고/희망의 심지를 둀”(「살라띠가의 호야불」) 우는 하루하루가 자바 사람들의 미소처럼 밝은 것이다.

-맹문재(시인, 안양대 교수)

[저자]

화원)
-여수국제무역박람회 흥보위원
-1960년 경북 예천 출생
-2015년 계간·문장·시부문 신인상 수상
-한인포스트 라디오 방송 진행
-2015년 ‘붓과 렌즈로 보는 인도네시아’ 서양화 개인전(한국문

화원)
-월드옥타 상임이사
-2017년 재외동포 문학상 시부문(작가) 수상
-현) 한국문화 인도네시아지부
부회장, 사산 자바문화연구원장
시집·민들레 적도·(2016년)

금주의 詩

와루나무2

세월이 지나간 손가락 마디 마디
류마티스가 노인의 취침을
어렵게 하듯

오랫동안이나 쌓인 시간의 무게로
가눌 수 없던 너의 등줄기
꺾이고 굴곡지고 파여져
아픔이 딱지처럼 붙어 있다

가진 수명 다 살면 뭐하게
와루나무야!
모진 질고(疾苦)의 삶
여태 이어 오느냐?

스치는 해풍만이
너의 등
너의 거친 손마디
남몰래 어루만져 주는구나



김재구/시인
한국문화 인도네시아부 회원



〈시작 노트〉

얼마전 품복의 생기기 해변에 갔을 때의 일이다. 그 근처 해산물 전문 음식점에 들렀을 때, 그 뒤 면 해변으로 난 턱마당에서, 나는 침 앉으러운 나무를 발견하였다. 등은 굽어 있고 다른 나무들은 모두 테두리 안에서 위로 곧게 잘 자라고 있는데 유독 사진에서 보이는 이 나무만 등이 굽고 마디 마디가 터져 너무 힘들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이 나무에서 인생 삶이의 어려움과 덧 없음을 또 한 번 느껴 보았다. 그리고 흡사 우리 어머니의 흰 등과 손 마디가 생각이 나 내 마음이 많이 아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 년 열 두 달 매일 꽃을 피운다고 한다. 놀랍다. 꽃도 예쁘고 그 향도 아주 좋다. 이 나무의 이름을 종업원에게 물어보니 와루나무라고 한다. 이 나무를 보면서 한 사람의 거친 인생에 대한 영감이 생기고 이를 시로 짜려 보았다.

청기와 Chung Gi Wa

햄, 소시지, 신선한 야채와 육수,
매콤한 다데기로 한층 칼칼하고 얼큰한

부대찌개

2~3인분 275,000 루피아



라면사리까지 더해져 한끼 식사로 손색없는
청기와 부대찌개! 지금 바로 식당으로 오세요~.

(*) 가격은 지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청기와 상품권 출시!

고마운 마음을 청기와 상품권으로 전해보세요.

상품권 종류 50만 루피아, 100만 루피아

상품권 특징 본 상품권은 청기와, 청기와 테라스, 청기와정육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PT. KOREA TELECOM INDONESIA

SMART IT SOLUTION PROVIDER

Sohi Pancoran Tower Splendor 2101,
Jl. Let. Jend. MT. Haryono Kav. 2-3, Tebet Barat,
Tebet, Jakarta Selatan 12810, DKI Jakarta, Indonesia

0812 8100 5468 / sshong.kti@gmail.com
021 8062 5851 / www.koreatelecom.co.id



한인포스트 캠페인 "9505 건강한 한인사회를"

사랑의 전화

9505는 95% 한인이 경제적으로 낙오된 5%의 한인들을 돌보자는 취지입니다.
어려운 환경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잠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인동포분들에게 힘 내시라고 십시일반으로 동포들과 기업인들의 후원으로
쓸고 라면 그리고 생활필수품을 나눠드립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sms : (천사 구구구)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0812-1004-999

126개월째 300여명에게 사랑나눔을

"건강한 한인사회를 위한 우리 동포의 헌신에 감사"

- *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쌀 5~20kg, 현지라면, 생활필수용품 1박스/ 매월
- 기타 - 학자금 및 생활자금

** 배달문의 : 0819-3272-4757 신국장

배달은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10개 지역으로 나눠 직접 가정으로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 자원봉사 : 2019년 6월 28일(금) 오후 2시 ~ 4시 <포장 봉사를 원하시는 분 전화주세요>

* 장소 : 미원 본사 (021-470-4280) * 필요인원 : 10명 (사전예약 0819-3272-4757 신국장)

[대사관 안전공지] 높은 파도 주의보

1. 주제국 BMKG(기상지질
청)은 7.15(월) ~ 7.18(목) 까지
기압배치에 따른 높은 파도 주
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2. 인도네시아 전 해안이
1.25m 이상 파도가 치겠고 특
히, 아래 지역은 2.5~4m의 높
은 파도가 일겠다고 경고하였습
니다.
- 수마트라섬 서부해안
- 순다해협 남부
- 자바섬~NTT 남부(발리, 롬
복섬 포함)
3. 위 지역 특히, 발리/롬복 해
안에서는 빠른 풍속과 높은 파
도로 서핑, 파라세일링, 퍼러글
라이딩, 바다수영 등 수상스포
츠와 소형페리 탑승을 자제하고
기상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4. 대상
- 순수 창작물(발표되었거나
표절 작품은 당선이 취소 됨)
- 맑은 고딕, 10 포인트,
행간 160%로 작성
- 학생(만14세 이상의 중고등학
생), 일반인(성인)
5. 보내실 곳
ikcskr@gmail.com과
indonesiastory@hotmail.
com로 동시 송부
-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표기

제10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 공모

-한인문화연구원-

1. 주제 : 인도네시아 이야기
2. 원고 모집 기간
2019년 8월 1일~2019년 9월 20일
3. 원고 작성 기준
- 산문 부문 A4 3쪽~5쪽 /
시 부문 2편 이상
4. 대상
학생(만14세 이상의 중고등학
생), 일반인(성인)
5. 보내실 곳
ikcskr@gmail.com과
indonesiastory@hotmail.
com로 동시 송부

한국 일간지/주간지/월간지
구독 안내

+ 보너스 : 한인포스트. 주요 인니간행물
<자카르타 기준>

격일(월수금) 배달 월 90만 루피아

* 무역부 검찰청 관세청 간행물
당일 통관허가 품목

▶ 일간지 :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국민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일간스포츠
전자신문

▶ 주간지 :
주간조선 주간한국 주간매경 이코노미스트
한겨레21 시사저널 시사in

▶ 월간지 :
신동아 월간조선 주부생활 여성동아 여성조선 여성중앙
우먼센스 과학동아 소년조선 styler 리빙센스

원하시는 한국의 모든 일간신문/주간지/학습지를
인도네시아 어디든 배달해 드립니다.

신문사업자 허가업체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CV. Tiga Bintang Jaya

구독문의
HanInPost

한인포스트

0812-1004-999

카톡아이디 haninpost

021-4586-9199(대) haninpost@gmail.com

문의전화

ATM 이용시 금융사기 주의

최근 발리(Bali)와 졸레곤(Cilegon)

지역에서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리 국민들께서는 편의점이나 작은 마트에 있는 ATM 사용을 지양하고 은행 내에 있는 ATM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ATM에 넣은 카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절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말고 즉시 해당 은행에 카드 정지를 신청하는 등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수법

- ATM에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와 출금액을 입력하였으나 현금이 나오지 않고 모니터에 초기 화면이 떠 당황하는 피해자에게 뒤에 있는 현지인이 도와준다고 하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하여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자, 화면에 비밀번호가 그대로 표시되면서 카드는 나오지 않아 피해자가 인근에 있는 은행으로 이동하여 정지를 신청하였으나 이미 다액이 인출됨

- 피해자가 편의점에 있는 ATM에 카드를 넣었으나 카드가

걸려 나오지 않아 편의점 직원에게 문의하자, 직원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카드가 나온다고 안내하여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자 카드와 연결된 피해자의 계좌에서 다액이 인출됨

이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에

○ 대사관 영사과(평일 주간) : +62-21-2967-2580

○ 대사관 당직전화(긴급시),

24시간 운영) :

+62-811-852-446

바뀌는 재외국민·외국인 건보 규정 보니...

'건보료 면허 방지법' 16일부터 발효,,,체납 시 100% 본인 부담

6개월 이상 한국내 체류하는
외국적 재외국민과 외국인 등

은 오는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의료비 전
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
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6일부

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
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
강보험에 의무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직장 가입
자로 뺀 외국인은 지역 가입 여
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었다.

* 건강보험 외국인과 재외국민
100만 명 육박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1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
이 31일 공개한 '2018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자료'를 보면 2018년 전
체 건강보험 가입자는 5107만 명
이고 이 가운데 외국인과 재외국
민은 97만1199명으로 전체 1.9%
를 차지했다.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국계 외국인도 포함
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오랜 기
간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
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가입자를
자격별로 살펴보면 직장 가입자
가 66만4529명(68.4%)이고 지역
가입자는 30만6670명(31.6%)이
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가입자는
2012년 58만1천여 명에서 2018년
97만1천여 명으로 67.1% 증가했
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면

서 외국인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
로 파악됐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
인은 236만7607명으로 지난해보
다 8.6% 늘었다.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 비율은 2014년 3.5%에서
2018년 4.57%로 늘었다.

정부는 7월부터 외국인 및 재
외국민이 6개월 이상 국내에 머
물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
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
게 한다. 이에 따라 55만여 명의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신규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됐
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2월 중순
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국내
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
는 최소 체류기간을 기존 3개월
에서 6개월로 늘렸다. 그동안 외
국인 및 재외국민은 국내에 들어
와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 가입을 결정했다.

짧은 체류기간요건과 임의가입
으로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
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
해 진료 후 출국하는 외국인이
많아졌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자 2018년 12월 18일 외국인과 재
외국민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
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전국 어디서나 빵빵터지는 U+LTE
Rp. 40,000/일
(10일 이상)

U+ LTE THE ULTIMATE

한국 어디서든 와이파이를 무제한으로!

외근, 출장, 여행등 외부에 있을 때
와이파이존 찾아 헤매시나요?

스마트폰 테더링이 불편한 분들
(데이터, 배터리부담)

휴대용 와이파이 무제한 1일
하루 1GB 사용 후 속도제한(무제한)

동시 10명 접속 가능 LTE전국망 빠른 LTE 속도

국내에 여행 또는 출장 온 외국인

이동업무가 찾은 직원이 많은 기업체

HanInPost
한인포스트
Service Center
+62 813 1999 9114
+62 812 1004 999 (한국인)
+62 21 4586 9199
(WiFi+013) Available WhatsApp, KakaoTalk & Line

독있는 곤충 톰캣(Tomcat) 비상

- 탄저병 못지않고 뱀보다 강한 독성... 불빛 찾았다녀
- 1cm 톰캣 몸통은 독성 덩어리로 번식 생존력 강해
- 습지 나무 풀 화분 어디든 숨어살고 날아다니며 이동
- 가렵고 따갑고 물집에 낫지도 않아...집안 자주해야 닦아내야

중부 자카르타에서 30층 고층아파트에 살고 있는 정모씨는 “자고 일어나 보니 몸에 붉은 반점이 서너개 생기고 가려워 손댔다가 하루만에 피부과를 찾았다” 주부는 “집안에 Tomcat을 발견 못했는데 아이 몸에 반점이 켜져서 확인해 보니 톰캣이라고 하더라구요”

톰캣이라고 불리는 독충 때문에 밤마다 비상이다. 고층 아파트라고 안심할 수 없고 잘 정리된 주택가도 말할 것도 없다. 구굴에서 Tomcat을 검색하면 피해는 엄청나다. ‘찰리개미’라고 불리우는 톰캣은 딱정벌레 그룹에 속한 곤충이다. 이 독충은 몸통이 Tomcat F-14 전투기와 닮았다고 Tomcat이라고 불리고 있다. 몸 길이는 약 1cm에 날개가 달려 있어 높은 곳도 쉽게 날아오른다. 톰캣은 개미와 같은 모양으로 하복부와 머리가 검고 몸체는 오렌지 갈색이다. 한인동포의 톰캣 피해를 막기위해 한인포스트는 자료를 찾아 Tomcat에 관한 모든 것을 정리해 본다. <편집부>

■ 톰캣 발생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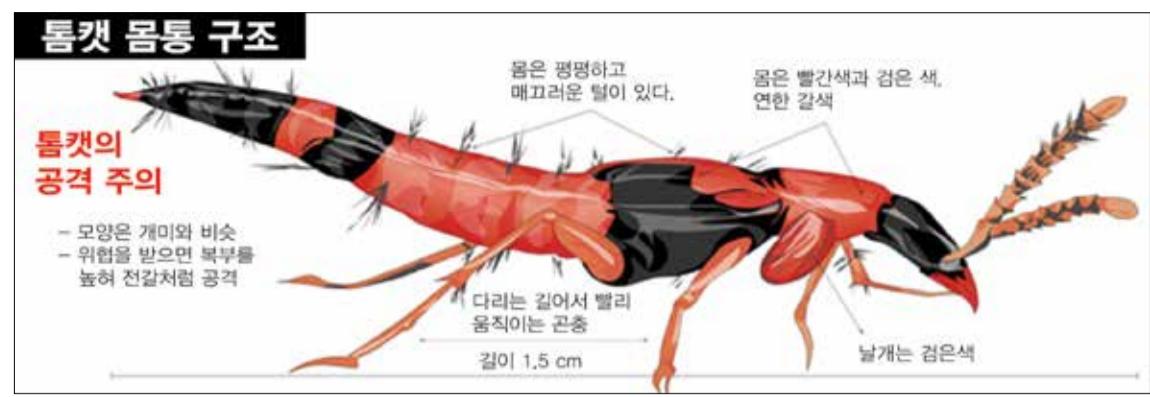
Detik health에 따르면 톰캣은 2008년에 동부자와주 뜰룽아궁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신종 독충류이다. 그 후 2012년에 수라바야 시에 크게 번졌고 곧바로 자와섬을 점령해 버린 번식력이 강한 독충류이다.

■ 톰캣과 탄저병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족자의 끌론쁘로고(Kulonprogo) 지역 주민 16명이 고질의 탄저병에 걸린 것으로 밝혀졌다. 끌론쁘로고 보건당국자 Bambang Haryatno씨는 “피부 증상은 톰캣에 물린 것과 유사하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기리 물료 (Girimulyo) 지역에서도 같은 증상의 피부병 환자가 발생했다. 이후 보건부 조사에 따르면 “피부질환 원인은 톰캣이다”고 결론 내렸다.

탄저균은 온 몸으로 확산될 수 있다. 탄저병의 증상은 톰캣 증상과 거의 유사하고 피부에 물집과 검은 발진이 생긴다. 탄저병 환자 피부는 가려움증과 물집이 생기다가 아픔이 사라진다. 톰캣 증상과 탄저병 감염 차이는 탄저병은 피부가 검게 된다는 것이다.

족자 가자마다 대학교의 미생물학과 Ludhang Pradipta Rizki 박사는 “탄저병은 열과 두통을 촉발시킬 수 있다. 3종류의 탄저병은 치명적인 수막염의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뇌염증과 같은 외부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심각한 두통, 발작 등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생기고 뜨거운 물이나 화상처럼 물집이 생긴다. 톰캣 몸통은 가늘고 길며, 머리, 복부, 꼬리 부분으로 구분된다. 다리는 3쌍으로 되어 있다. 위협을 받으면 복부를 올리는 전갈과 같이 반응을 한다.

■ 톰캣 발견하면?

톰캣은 특히 밤 불빛을 찾아오기 때문에 저녁에 쉽게 사람과 접촉하게 된다. 사람은 보통 모기처럼 물리면 반사 작용으로 곤충을 때리거나 놀려 터뜨린다. 하지만 톰캣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톰캣은 몸에 독액을 방출하기 때문이다. 톰캣을 절대 손으로 만지면 안된다. 피부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몸에 기어 다니는 톰캣을 발견할 경우 입김으로 불거내거나 종이를 사용해서 날려 보내야 한다. 화장지로 세게 눌러도 기절했다가 다시 기어다니기 때문에 반드시 강한 걸로 눌러서 죽었는지 확인하고 주변을 소독약으로 닦아내야 한다.

■ 톰캣 치료 방법

톰캣 독에 접촉한 피부는 따갑고 가렵다. 24-48시간 동안 심한 가려움과 화상처럼 물집이 생긴다. 특히 팔과 발, 피부에 물집이 생기면 감염환자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다.

Detik Health의 보도에 따르면 Dr. Gusti Nyoman Darma Putra 의사의 “톰캣 증상은 발열을 일으키지 않는 피부병이며, 일반적으로 발열과 같은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는 부분적인 자극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이 독충은 피부에 심각한 가려움을 일으키고 심하면 물집과 고통을 주기 때문에 위험하다.

톰캣에 감염된 피부는 즉시 깨끗한 물과 비누로 씻어야 한다. 화상과 같은 병변이 나타나면 과망간산 칼륨, 아니면 차가운 소독액을 바른다.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항생제 크림을 상처에 발라 심각한 감염을 막는다.

보건복지부장 Sarjono은 “톰캣에 쏘이면 즉시

갖한 물과 비누로 씻어야 한다. 더러운 손이나 손톱으로 인해 상처가 악화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깔지 말라”고 말했다.

깨끗한 물로 씻은 후, 피부 상처에 코르티 코스테로이드 크림을 발라준다. 화상과 같은 물집이 생기면 즉시 차가운 소독약을 바른다. 물집이 터지면 약한 항생제 크림으로 바른다. 상처를 절대로 긁지 말고 민간요법과 분말제를 사용하면 안된다.

톰캣에 쏘이면 다음과 같이 치료해야 한다.

* 톰캣이 지나간 부위를 깨끗한 물과 비누로 씻어야 한다. 피부에 가려우면 세제 문지르지 말고 물로 닦은 후, 깨끗한 천으로 가볍게 두드려 건조시킨다. 그런 다음 부위를 냉수로 놀려준다.

* 피부에 뎁어리가 생기면 부수거나 긁지 말라. 뎁어리 액체가 있는데 깨지면 상황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 일반적으로 가려움과 따가움은 6~10일 동안 같다. 흉터가 심해지면 즉시 병원에 가야한다. 대개 소독제와 항생제 크림으로 질환을 완화시켜 준다.

■ 톰캣 방지 주변 환경...화분에도 서식

톰캣을 피하기 위해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톰캣은 습기있는 장소와 더러운 환경을 좋아한다. 고층 아파트라도 거주지에 나무, 습지 또는 숲이 있으면 집에 방충망을 달거나 저녁에 항상 문과 창을 닫아야 한다. 톰캣은 저녁에 밝은 빛을 찾아 날아오기 때문이다. 또한 집안에 큰 화분이 많이 있다면 서식할 수 있어 약을 뿌려야 한다. 거주지에 들어온 톰캣은 물기나 사람 피부를 좋아한다. 톰캣이 들어오면 침상과 의류, 수건, 집기애 액체를 남겨 둘 수 있어 자주 닦아내야 한다.

■ 톰캣 번식

인도네시아 보건부 웹 사이트를 통해 보건부 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톰캣은 벼나 옥수수의 농지에 주로 서식하고 있다. 톰캣의 활동은 주로 우기에 발생하기 쉽지만 번식력이 강해 건기 우기가 따로 없다. 톰캣은 물기가 많은 땅이나 습한 서식지에서 주로 번식한다. 자란 성충은 땅이나 나무, 식물 줄기에서 서식한다. 보고르 농업연구소의 Aunu Rauf 교수에 따르면 톰캣 독충은 벼농지, 늪지, 죽죽한 토양에서 주로 번식한다. 톰캣은 땅속에 알을 낳고 4일후 유충이 된다. 9일후에는 번데기를 거쳐 곤충이 된다. 톰캣은 알부터 곤충이 될 때까지 18일이 걸린다. 곤충이 되어 3개월 동안 살다가 죽는다.

■ 톰캣 방제

톰캣은 번식력이 매우 강하고 생존력이 강해서 잘 죽지 않아 반드시 살충제를 살포해야 한다.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새로운 100년의 주인공은 국민입니다

100
대한민국 100주년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8·15 광복 100주년
4·19 혁명 100주년
5·18 민주화운동 100주년
6·10 민주항쟁 100주년
IMF 외환위기 극복 100주년
촛불 시민 혁명 100주년
南北정상회담(판문점 평양) 100주년
3·1 운동 100주년
4·11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